

# 2025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5 K리그 기술보고서



K LEAGUE



# 2025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5시즌은 K리그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서 견고하게 뿌리내린 해였습니다. 3년 연속 유료 관중 300만 명 돌파라는 대기록과 더불어, 리그 총 입장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흥행 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FC서울은 5월 전북현대와 홈경기에서 4만 8천여 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등 흥행의 중심에 섰고, 전북현대는 구단 역대 최단기간 30만 관중을 돌파하며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아 응원해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K리그의 키워드는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전북현대는 포엣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 중심의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며, K리그 사상 최초의 통산 10회 우승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K리그2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가 강등 1년 만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K리그2 우승과 다이렉트 승격을 일궈내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격의 기쁨을 맛본 부천FC1995와, 끝까지 승격 경쟁을 벌인 성남FC·서울랜드의 활약은 K리그2가 기술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무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테크니컬 리포트는 2025시즌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팀의 플레이스타일, K리그1·2 비교 등 기술적 효율성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와 협업해 새로운 분석 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K리그를 바라볼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2025시즌 K리그를 빛내준 모든 구성원과 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리포트에 담긴 기술적 분석들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다가올 2026시즌을 준비하는 현장의 모든 지도자와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권 오 갑

## CONTENTS

용어정리	BEPRO11 데이터 정의	02
TSG	2025 K리그 TSG(기술연구그룹)	03

01	<b>2025 K LEAGUE OVERVIEW</b>	<b>04</b>
	THE STORY OF K LEAGUE1 2025	06
	INTERVIEW   K리그1 우승 주장 박진섭	18
	INTERVIEW   K리그2 우승 주장 이명주	22
	TEAM OF THE YEAR	26

02	<b>TALKING POINTS</b>	<b>32</b>
	VAEP란 무엇일까?	34
	Point 1   K리그1 팀 VAEP 분석	36
	Point 2   K리그2 팀 VAEP 분석	38
	Point 3   각 구단 선수 유형별 VAEP 비중	40

03	<b>ANALYSIS</b>	<b>42</b>
	OVERALL	44
	LONG BALL	46
	FORWARD PASS	48
	SEQUENCE	52
	SET PIECE	54

04	<b>TEAM PROFILES</b>	<b>56</b>
	K리그1	58
	K리그2	70

- **xG(eXpected Goals)** | 기대 득점. 특정 슈트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값은 슈트 위치 및 각도, 연결된 패스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됨
- **xGOT(eXpected Goals on Target)** | 유효 슈트 내 기대 득점. 유효 슈트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OT값은 xG값과 슈트 이 골문 안으로 향한 위치(goalmouth location)에 의해 결정되며 계산 과정에서 모든 슈트 중 유효 슈트만 포함됨
- **xT(eXpected Threat)** | 기대 위협. 득점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공을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 공은 패스(pass), 드리블(dribble), 캐리(carry) 3가지 방법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경기장을 구역별(21x18)로 나누어 각 구역에 해당하는 득점 가능성을 부여하고, 공의 전달이 마무리되는 구역에서 공의 전달이 시작되는 구역의 득점 가능성 값을 뺀 값으로 산출됨
- **유효 슈트** | 골대 안으로 향하는 슈트
- **블락된 슈트** | 슈트가 상대 맞고 인플레이 되거나 사이드라인으로 아웃되는 슈트
- **벗어난 슈트** | 골대를 맞거나 골 라인으로 나간 슈트
- **돌파(take-on)** | 공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수비 범위 안으로 제치는 시도
- **드리블(step-in)** | 공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수비 범위 밖으로 우회하여 전진하는 행위
- **시퀀스** | 볼 소유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속적 행위의 모음. 시퀀스 시작은 골 볼 점유의 시작이며 상대의 수비·슈트·볼 아웃 등 상황에 의해 종료됨
- **슈트 시퀀스** | 슈트로 이어진 시퀀스
- **득점 시퀀스** | 득점으로 이어진 시퀀스
- **패스** | 공을 가진 선수가 동료 선수에게 의도를 가지고 소유권을 전달하려는 시도
- **키 패스** | 슈트로 연결된 마지막 패스
- **공격 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공격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 **중원 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중원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 **수비 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수비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 **장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패스
- **중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1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패스
- **단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15미터 미만인 패스
- **전진 패스** | 패스의 방향이 전방 12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 **횡 패스** | 패스의 방향이 좌우 측면 6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 **백 패스** | 패스의 방향이 후방 12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 **크로스** |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한 횡적 패스
- **PPDA(Passes Per Defensive Action)** |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상대방 골 라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수비 시도 행위 당 상대방 패스 시도 횟수로 계산됨
- **공중볼 경합** | 어깨보다 높은 위치의 공을 소유하기 위한 도전
- **피지컬 경합** | 어깨보다 낮은 위치의 공을 소유하기 위한 도전
- **루즈 볼 경합** |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공에 대한 도전
- **태클** | 상대가 소유한 공을 빼앗으려는 시도
- **태클 성공(소유권 미획득)** |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에게 태클을 시도하여 공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것
- **인터셉트** | 상대의 패스·크로스·슈트의 경로를 수비하여 본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
- **블락** | 상대의 패스·크로스·슈트의 경로를 수비하여 공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것
- **획득** |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공을 본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
- **클리어** | 수비적 목적을 가지고 공을 걷어내는 것
- **볼 미스** | 공을 소유 중이거나, 소유하려고 할 때 실수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것
- **캐칭** | 골키퍼가 슈트를 막아내면서 공을 소유한 것
- **편칭** | 골키퍼가 슈트를 막아내면서 공을 소유하지 못한 것
- **공중 볼 처리** |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어깨보다 높은 위협적 공에 도전하는 것
- **그라운드 처리** |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어깨보다 낮은 위협적 공에 도전하는 것

## 기술위원장 | 김호영

## 영상분석관 | 김형수

곽태휘	前 청두룽청 코치
권오규	前 충북청주FC 감독 前 부천FC1995 코치
김경량	現 KFA 전임 지도자 前 AFC/KFA 지도자 라이선스 강사 前 대전하나시티즌 B팀 감독
김상록	前 울산HD 코치 前 FC안양 코치 前 부산아이파크 코치
김상문	前 송실고 감독 前 경기진영고 감독 前 오산고 감독
김재성	前 인천UTD 코치
박동혁	前 경남FC 감독 前 충남아산FC 감독 前 아산무궁화FC 감독

박충균	前 서울이랜드FC 감독 前 텐진텐하이 감독 前 전북현대 코치
백영철	現 KFA 강사 前 서울이랜드FC 코치 前 현풍고 감독
임관식	前 안산그리너스 감독 前 전남드래곤즈 코치 前 김천상무 코치
최성용	前 수원삼성 수석코치 前 상하이선화 코치
최재수	前 부산아이파크 코치 前 강원FC 코치
최철우	前 성남FC 감독 前 서울이랜드FC 코치 前 전남드래곤즈 코치

# 01

## 2025 K LEAGUE OVERVIEW

전북은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조기에 K리그1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 3년간 울산에 내줬던 패권을 단 1년 만에 되찾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또한 화려한 선수층을 앞세운 대전과 안정적 조직력을 구축한 김천이 상위권을 형성하며 리그 흐름을 주도했다. 뒤를 이어서는 포항-강원-서울-광주가 촘촘한 중위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매 라운드 순위가 요동치는 치열한 흐름을 만들었다. 또한 K리그1 신입생 안양은 뚜렷한 팀 색깔과 실리적 운영을 바탕으로 8위라는 성적을 기록, 1부리그에 안착했다. 반면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던 울산은 격랑을 겪으며 하위 그룹으로 추락했고 강등을 걱정하며 2025년을 보냈다. 승강 플레이오프로 향한 수원FC와 제주의 결과는 상반됐다. 수원FC는 부천에 밀리며 끝내 K리그2로 떨어졌고, 제주는 수원을 잡아내며 극적으로 살아났다. 오랫동안 K리그1의 터줏대감이던 대구는 감독 교체라는 승부수에도 불구하고 자동 강등을 면하지 못했다.

2025 K리그1 최종 순위									
순위	구단	경기	승	무	패	승점	득점	실점	득실
01	전북	38	23	10	5	79	64	32	32
02	대전	38	18	11	9	65	58	46	12
03	김천	38	18	7	13	61	59	45	14
04	포항	38	16	8	14	56	41	46	-5
05	강원	38	13	13	12	52	37	41	-4
06	서울	38	12	13	13	49	50	52	-2
07	광주	38	15	9	14	54	40	41	-1
08	안양	38	14	7	17	49	49	47	2
09	울산	38	11	11	16	44	42	50	-8
10	수원FC	38	11	9	18	42	51	58	-7
11	제주	38	10	9	19	39	40	53	-13
12	대구	38	7	13	18	34	47	67	-20

2025 K리그2 최종 순위									
순위	구단	경기	승	무	패	승점	득점	실점	득실
01	인천	39	23	9	7	78	66	30	36
02	수원	39	20	12	7	72	76	50	26
03	부천	39	19	10	10	67	59	49	10
04	서울E	39	17	14	8	65	64	43	21
05	성남	39	17	13	9	64	46	32	14
06	전남	39	17	11	11	62	63	52	11
07	김포	39	14	13	12	55	48	37	11
08	부산	39	14	13	12	55	47	46	1
09	충남아산	39	13	14	12	53	51	47	4
10	화성	39	9	13	17	40	36	50	-14
11	경남	39	11	7	21	40	34	58	-24
12	충북청주	39	7	10	22	31	30	62	-32
13	천안	39	7	9	23	30	41	70	-29
14	안산	39	5	12	22	27	25	60	-35

2월

### 꽤 단단했던 'BACK 4의 대구'

2025시즌 2월, 대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초반 흐름을 만들어냈다. 오랫동안 팀의 정체성이었던 BACK 3를 과감히 내려놓고 BACK 4로 변화를 시도했다. 그 중심에는 CB 카이오가 있었다. 카이오는 공·수 양면에서 제 역할을 해냈다. 수비선이 빠르게 안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대구는 1R 강원전 2-1 승리에 이어 2R 수원FC전까지 3-1로 잡아내며 시즌 초반 2연승을 달렸다. 해당 경기에서 라마스는 연속 득점을 터뜨리며 중앙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요시노-라마스-세징야로 이어지는 미드필더 조합은 공·수 밸런스와 창의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대구'의 2025시즌 초반은 전술적 변화, 중원의 응집력, 외국인 선수들의 시너지가 맞물리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구 주요 지표

DMF가 관여한 공격 패스 전개  
572회(1위)

팀 내 최다 키 패스  
세징야(9회)

폴백 공격 가담 지표  
207회(1위)



3월

### 대전의 시대

3월은 황선홍 감독의 지도력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시기였다. 대전은 3월 한 달 동안 3승 1무를 기록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탔고, 7득점 3실점이라는 수치로 화력과 균형감을 동시에 증명했다. 중심에는 주민규가 있었다. 주민규는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중요한 순간마다 팀의 사기를 진작했다. 득점 분포도 인상적이었다. 전반 10분 이전 2골, 80분 이후 3골을 기록하며 경기 초반과 막판 모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전은 4-2-3-1을 기본으로 수비 시 4-4-2로 전환했다. 미드필드를 단단히 틀어막는 데 성공했고, 공격에서는 자유로운 전개 속에서 주민규를 향한 정확한 타이밍의 볼 투입으로 효율적 득점을 만들었다. 정재희는 후반 조커로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다. 대전의 3월은 완벽한 상승 곡선이었다.



대전 주요 지표

수비 경합  
36.25회(경기당)

포켓 활용 패스 성공률  
66.7%

xG 4.7 넘어선  
7득점



4월-1

### 전주성의 재건에 성공한 전북

4월에 접어들며 전북은 전진우를 중심으로 아쉬웠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4월의 전진우는 팀이 기록한 8골 중 절반을 책임졌다. 승부처마다 전북을 살려내는 순도 높은 득점으로 반등을 주도했다. 이에 더해 전북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결정적 요인으로는, 실험적으로 가동되던 박진섭-강상윤-김진규로 이어지는 미드필더 삼각 편대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조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꼽힌다. 세 명의 미드필더 역할이 명확하게 정리되며, 전북의 경기 운영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수비와 공격을 잇는 중원의 응집력이 궤도에 오르자 전북은 다시 한 번 '리그 강자'의 얼굴을 되찾기 시작했다.



전북 주요 지표

xG 6.38 초과한  
**8득점**

전진우 4경기 평균 평점  
**7.5**

[전환] 빠른 공격 전개 비율  
**44.9%(1위)**



4월-2

### 광주는 불가능의 반대말

광주는 4월에도 그들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었다. 이정호 감독 체제의 광주는 ACLE 일정을 병행하는 체력적 부담 속에서도, 경기력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했다. 자신들의 색깔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뜻이다. 특히 4월에 치른 3경기에서 승리에 필요한 만큼만 '딱 1골'을 더 넣는 승리를 거두며, 화려함보다 실리를 택한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였다. DF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되, MF와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그물망 형태의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공격에서는 헤이스와 박태준이 번갈아 영향력을 발휘하며 광주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선수단의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광주. 이들의 4월은, 이 팀이 왜 리그에서 가장 조직적 팀 중 하나로 평가받는지를 재차 증명한 시간이었다.



광주 주요 지표

MF-DF 간격  
**14.6m(1위)**

평균 수비선 높이  
**43.5m(1위)**

득점 시퀀스당 평균 패스 횟수  
**10회(1위)**



5월

예상 못한 서울의 부진

5월의 서울은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대조적으로 극심한 공격 생산성 저하에 시달렸다. 일단 김진수-김주성-야잔-최준으로 구성된 BACK 4는 7경기에서 단 6실점만을 허용했는데, 이는 경기당 평균 0.86실점이다. 수비선만 놓고 보면 리그 상위권이었고, 실제로 서울은 미드필드에 기반한 조직적 수비로 상대의 중앙 침투를 슬기롭게 제어해냈다. 문제는 득점력이었다. 대전전과 제주전은 서울의 악점이 드러난 게임이었다. 대전전에서는 무려 20개의 슈트를 시도하고도 0-0 무득점 무승부에 그쳤고, 제주전에서는 24개의 슈트를 쏟아부었고도 단 1골에 그치며 1-3으로 패배당했다. 슈트 수치는 압도적이었으나 결과가 정반대였다. 공격 과정에서의 비효율과 결정력 부재는 서울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 단단한 BACK 4와 대비되는 날카롭지 못한 전방은 서울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원인이었다.



서울 주요 지표

xG 7.67 이하의 5득점

패킹 값 평균 5.17(최하위)

윙백 크로스 키 패스 9회(2위)

6월

예비군이 지키는 강원

강원의 6월. 출발은 쉽지 않았다. 포항전 1-2 패배, 전북전 0-3 패배로 연패를 맞았다. 하지만 송준석-강투지-신민하-이유현으로 재정비된 BACK 4는 대구전 무실점, 수원FC전 1실점으로 상대를 통제하며 팀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수비가 버티자, 강원의 경기 운영 전체가 빠르게 정돈됐다. 그 지점에서 전역자와 영입생 효과도 즉각 나타났다. 전북-서울전에서 예열을 마친 김건희는 대구전에서 추가골을 터뜨리며 K리그 복귀골을 신고했다. 김천에서 갓 전역한 모재현-김대원은 강원의 측면을 업그레이드하며 반등의 상징이 됐다. 여기에 리그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 서민우도 복귀해 공-수 전환의 중심축 구실을 했다. 6월의 강원은 4-4-2 틀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며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얻었다. 수비에서 이겨내고, 중원에서 균형을 잡으며, 전역자들이 해결하는 삼박자가 완성됐다. 이때부터 강원은 확실한 생존 동력을 확보했다.



강원 주요 지표

DMF가 관여한 공격 패스 전개 791회(1위)

포켓 활용 47회(1위)

윙백 크로스 키 패스 6회(1위)





수원FC 주요 지표

xG 4.99 훌쩍 넘은  
9득점

세트피스 상황 득점  
3득점(33.3%)

팀 내 최다 득점자  
윌리안(4득점)

7월

여름에 살아난  
수원FC

수원FC는 시즌 내내 해결사 부재와 전진 능력 부족으로 고전했다. 부진을 면치 못하던 수원FC는 여름 이적시장을 기점으로 활로를 모색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브라질 출신 공격형 미드필더 윌리안이 있었다. 윌리안은 광주전 데뷔골을 시작으로 포항 원정 멀티골, 안양전 프리킥 결승골까지 연속골을 기록, 단숨에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김은중 감독은 4-2-3-1을 기반으로 하되 공격 시 3-2-4-1 구조로 전환하며 윌리안을 하프 스페이스의 중심에 배치했다. 여기에 좌우 풀백의 적극적 가담을 추가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흔드는 입체적 공격을 완성했다. 수비에서는 4-4-2 블록을 유지한 채 맨투맨과 지역 압박을 병행하며 중앙 침투를 단단히 제어했다. 공 탈취 이후에는 빠른 역습으로 곧장 상대를 위협했다.



8월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

8월의 포항은 결과와 전술적 완성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사냥하며 성공적 한 달을 보냈다. 박태하 감독은 3-4-3을 기본으로 하되, 빌드업 국면에서 두 명의 미드필더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1차 빌드업 형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상대 압박을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는 전술을 지속적으로 구현했다. 중심에 기성용이 있었다. 그는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마다 전진 패스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며 포항 공격의 리듬을 조율했다. 이 밖에도 조르지-홍윤상이 호재로 이어지는 하프 스페이스 연계는 상대 수비 간격을 반복적으로 붕괴시켰다. 윙백은 터치라인 부근을 넓게 쓰며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보했다. 이렇게 포항은 후방 빌드업에서 측면 전진, 하프 스페이스 침투, 중앙 직선 공격까지 다층적 공격 옵션을 끊임 없이 만들어냈다. 8월의 포항은 단순한 결과를 넘어 '상대의 압박 구조 자체를 흔드는 팀'이라는 강인한 정체성을 보여줬다.



포항 주요 지표

xG 1.90 초월한  
4득점

패킹 값 평균  
6.12

윙백의 키 패스 생산  
4회(1위)

9월

풍전등화의 울산

울산의 2025시즌은 시작부터 불안했다. 김판곤 감독 체제로 개막한 울산은 뻣뻣한 일정 속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연속된 부진 속에 결국 새로운 수장 신태용 감독을 맞이하며 변화를 택했다. 하지만 9월 역시 반전은 없었다. 동해안 дер비를 1-1로 마무리하며 잠시 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직접적 순위 경쟁을 펼치던 안양과는 0-0, 최하위 대구와도 1-1로 비기며 순위를 전혀 끌어올리지 못했다. 승점이 절실한 시점마다 번번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시기였다. 울산의 가장 큰 문제는 전술적 혼란이었다. BACK 4와 BACK 3를 혼용하는 과정에서 수비 조직을 정돈하지 못했다. 후방에서부터 크고 작은 균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팀을 받쳐줄 확실한 공격 루트도 없었다. 공수 양면에서 난국이었던 울산은 9월에도 해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끝내 감독까지 또 바꾸고야 말았다.



울산 주요 지표

xG 2.82 아래의  
2득점

포켓 활용  
54회(1위)

패킹 값 평균  
4.52(최하위)



10월

김천은 완전체였다

김천은 전북의 뒤를 쫓는 팀 중 하나였다. 정정용 감독 특유의 리더십 아래 추격을 지속했다. '사기 유닛' 이동경의 역량도 두드러졌다. 이동경은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플레이메이커로서 기능했다. 공격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모두 책임졌다. 이동경을 도와선 측면에서 이동준·김승섭의 스피드가 상대 수비선을 즐기치게 흔들었다. 중앙에서는 이승원이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잡았고, 후방에서는 김강산이 버티는 수비진이 조직력 형성에 기여했다. 그야말로 '완전체'였다. 김천은 9·10월을 거치며 속도·조직·전환이 동시에 살아 있는 팀으로 격상했다. 전북 독주 체제 속에서도 끝까지 상위권 경쟁의 한 축을 지킨 김천이다.



김천 주요 지표

xG 11.04 넘는  
12득점

DMF가 참여한 공격 패스 전개  
1,130회(1위)

CB-DMF 패스 연계  
602회(1위)



# K리그에 있어야 하는 선수들

11월

## 보랏빛 도전자, 안양

안양은 처음 맞이하는 K리그1에서 자신들의 색을 잃지 않았다. 토마스는 디펜스와 미드필드를 오가며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유태유 임무를 맡았고, 모따-마테우스로 이어진 외국인 듀오는 도합 24골을 합작하며 안양 공격을 주도했다. 여기에 국내 선수들의 투지와 활동량이 더해지며 '팀'이 완성됐다. 안양은 그즈음부터 생존에 유리한 안정적 순위를 유지했다. 안양의 보랏빛 꿈은 11월 초, 울산을 홈에서 3-1로 완파하며 현실이 됐다. 이어진 제주 원정에서도 유키치의 멀티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챙겼다. 이렇게 안양은 잔류라는 목표를 '자력으로' 달성했다. 2025시즌의 안양은 '도전자'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었다.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물러설 순간에도 끝까지 그들의 축구를 선택했다. 11월 무렵의 안양은 이제 더는 승격팀이 아니었다. 당당한 K리그1의 한 팀이었다.



### 안양 주요 지표

- xG 7.14 부합한 7득점
- 외국인 득점 비율 7득점 중 4득점(57%)
- 왕백의 크로스 키 패스 6회(2위)

외전

## 승강 PO에서 의지력을 발휘한 제주

제주는 시즌 내내 하위권에 머물렀다. 시즌 막판엔 김정수 감독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대행 체제의 첫 경기는 끔찍했다. 무려 4명이나 퇴장당했다. 생존 여정의 시작부터 악재가 쏟아졌다. 그러나 제주는 기어이 살아났다. 마지막 라운드에 이르러 울산을 상대로 승리했고 다이렉트 강등을 피했다. 이어진 승강 플레이오프. 그곳에서 제주는 비로소 '팀 제주'를 증명했다. 유리 조나탄·남태희·김승섭·이창민 등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부여받은 미션을 최대한 수행했다.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 후방에서는 송주훈-임채민 조합이 수비 진영을 단단하게 지켰다. 골문에서는 김동준이 '수호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선방을 연이어 쏟아냈다. 결과는 1·2차전 합계 3-0, 무실점 완승. 시즌 내내 흔들리다가 버랑 끝에 몰렸지만, 마지막 순간 제주를 움직인 것은 전술도 계산도 아닌 '함께 남겠다는 의지'였다.



### 제주 주요 지표

- 유리 조나탄의 수비 가담 및 수비 스프린트 35회(2위) / 12회(1위)
- 김륜성의 공격 가담 및 크로스 352회(1위) / 36회(1위)
- 포켓 활용 53회(1위)





# K리그 최고 DMF가 담백하게 들려주는 2025 전주성 시크릿

전주성의 박진섭은 디펜시브 미드필더로 거듭났다. 그는 거스 포엣 감독의 지시 덕분에 2025시즌이 즐거웠다. 그의 말을 듣다보니 전북이 일으킨 대반전의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군더더기 없는 명령과 지켜야만 하는 원칙,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한 해였다.

**2025년은 박진섭 선수의 데뷔 후  
최다 출전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3,105분!  
알고 있었나요? 체력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몰랐어요! 경기 수가 평소보다 많다고는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개인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프리시즌을 잘 소화했던 거 같아요. 전북 팀 전체의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수들이 동계 전지 훈련 때부터 훈련을 잘했어요. 덕분에 다들 시즌 내내 잘 뛰었고, 부상도 적었습니다. 포엣 감독님의 ‘철저한 식단 관리’도 한몫했던 거 같아요.”

**환상적 한 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이었나요?**

“부상 없이 매 경기 풀타임을 뛸 수 있게 몸을 만들자, 개인적으로 그런 책임감이 있

었던 거 같습니다. 포엣 감독님의 오더도 좋았어요. 감독님은 저뿐만 아니라 각 포지션별로 ‘정확한 룰’을 부여하셨습니다. 각 선수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집중해야만 했죠. 오버해서 될 일이 없었습니다. 뚜렷한 목표 의식 아래 움직였어요.”

**언뜻 생각했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  
박진섭 선수의 경기당 뛸 거리는  
많을 듯했습니다. 그런데 10km가량으로  
집계됐어요. 평균적이었던 것이죠.  
이런 데이터가 명료한 지시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포엣 감독님은 엄청 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 포지션별로 임무가 다르고, 다들 그거에 맞게 수행하는 식입니다. 감독님이 제게 맡겼던 건, 1차적으로 ‘수비’입니다. 제가 공격 과정에서 활동량을

가져가는 걸 굳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경기마다 10km 정도만 뛰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움직여 시즌 전체를 잘 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박진섭 선수에겐 수비 미션이  
가장 중요했다는 뜻인데,  
포엣 감독으로부터의 지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감독님은 공격을 하다가 상대에게 차단을 당하고 곧장 역습을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예를 들어 부득이하게 공수 전환 상황이 온다면, 모든 선수가 완벽하게 수비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때 1차적 방어를 해줘야 하는 게 ‘박진섭’입니다. 감독님은 그게 제 구실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역습을 제어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안 되면 반칙이라도 시도했어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역습 저지'였으니까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진섭 선수의 가로채기 개수가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44번에 그쳤어요. 2022년과 2023년엔 100번이 넘었으니 차이가 크네요.**

**이런 숫자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가로채기를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래도 해석을 해보자면, 2025년은 센터백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움직였으니 가로채기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인터셉트가 자주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과거에 가로채기가 많았던 건 센터백이었던 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2025시즌은 과거에 비해 파울이 많았죠."

**지금의 박진섭 선수는 센터백인가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인가?**

"수비형 미드필더인 거 같습니다. 센터백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제 성향에 더 맞아요. 저는 와일드합니다. 강하게 하는 걸 갈망해요. 그런 기질이 중앙 수비수보다는 중원에 있을 때 더욱 잘 발휘하는 거 같아요. 센터백은 뚫리면 곧장 골을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 보수적으로 수비를 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저와 잘 맞아요."

**시즌 중에 보직 변경(센터백 → 디펜시브 미드필더)이 있었습니까.**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실, 시즌 극초반엔 코칭스태프 분들로부터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될 거라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팀의 수비가 다소 불안하다 보니 일단 센터백 보는 거로 정리가 됐죠. 그러다가 대전전이 기점이 됐어요. 직전 경기에서 감독님이 원치 않는 플레이가 팀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동하게 될 계기가 생겼습니다. 대전전을 준비하는 훈련 중에 '이제 네가 디펜시브 미드필더로 뛰어야겠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독님은 그때도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상대가 투 톱으로 압박하면 네가 내려와서 센터백들과 BACK 3를 형성해 빌드업을 하면 돼. 원 톱이면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볼 받으며 플레이 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하던 대로만 해.' 정말 심플 이즈 베스트였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만

일 복잡한 임무를 요구하셨다면 저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포엣 감독의 축구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렵פות이 드러나는 것도 같아요.**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에서 선수들의 수행 능력이 좋았던 건, 각자의 포지션에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해당 포지션에서 '진짜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신 거죠. 과한 롤을 부여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포엣 감독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송민규-김진규-박진섭-강상윤-전진우 오형제가 미드필드에 동시 출전한 16경기에서 전복이 13번을 이겼어요. 의미가 있는 지표일까요?**

"감독님은 항상 조합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 다섯 명이 출전하는 조합이 가장 좋았다고 판단하신 거 같아요. 실제로 결과도 좋았죠. 민규와 진우를 잠깐 제외하고, 중원 미드필더 세 명만 간추려서 볼게요. 일단 저는 말씀드린 대로 수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진규는 창의적인 움직임, 상윤이는 활동량. 그렇게 업무가 나뉘었습니다. 우리 세 명이 가운데 있을 때, 빌드업의 시발점은 일단 제가 되긴 해요. 그러다가 상대 압박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진규의 영리한 판단이 큰 도움이 되죠. 포지셔닝을 포함한 킥과 패스까지, 진규의 행동이 활로가 될 때가 많았어요. 상윤이는 오프 더 볼에 최적화했어요. 전북 전술 특성상 미드필더는 오프 더 볼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그걸 상윤이가 잘했어요. 활동량을 자랑하며 공이 없더라도 즐기게 움직여준 것이죠. 상윤이 덕분에 생성되는 공간들로 전복은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었어요. 정말이

지, 중원의 시너지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진규와 상윤이가 있어 저는 공격적 부담은 덜고, 디펜시브 미드필더로서 임무에만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025시즌 중 박진섭 선수의 패스 방향은 왼쪽으로 치우쳐 있더라고요.**

"전북 경기를 유심히 보면 아실 테지만, 우리는 왼쪽에서 패스 플레이가 많은 편이에요. 그곳의 (김)태현이와 민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타이밍이 참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쪽으로 자주 공을 줬습니다. 좌측으로 공이 가면 삼차 플레이를 포함한 좋은 플레이를 잘 만들어졌어요. 반면 우리가 왼쪽에서 싸우는 사이, 오른쪽엔 (김)태환이 형과 진우 같은 선 굵은 선수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들이 보다 수월하게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죠. 이런 작용들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제가 왼쪽으로 패스할 때가 잦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박진섭 선수와 관련해 눈길이 가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공중 볼 경합 성공률이었어요. K리그1 평균보다 거의 10%가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경합을 시도하는 위치도 한정적이지 않고 그라운드 전반에 걸쳤습니다.**

"이 지표가 제가 프로에서 살아남는 '이유'인 거 같아요. 전 경합에 자신이 있어요. '지지 말자' 이게 깔려 있어요. 솔직히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를 지배하기도 해요. 공중에서 이기는 저만의 비결이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낙하지점 사전 포착이에요. 요즘은 영리한 공격수들이 워낙 많아서 몸으로 블록을 거는 선수들도 많은데, 그것도 겪으며 연구하다 보니 파

훼법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마음과 노력으로 점프를 뛰다 보니 공중 볼 경합 성공 지수가 높은 거 같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파울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가 진짜 똑똑했어요. 페널티 박스 근처 같은 위험 지역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감독님의 전술적 능력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저는 1차 저지선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상대의 공세를 앞서 차단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위험 지역 파울 최소화예요. 감독님은 우리 박스 주변에서 파울이 발생하는 걸 싫어하세요. '진짜 원치 않으세요.' 파울보다는 런닝 디펜스를 요구하는 게 포엣 감독님의 수비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 역시 박스 근처 파울은 최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원칙을 고수했을 뿐입니다."

**2025년 K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시즌이고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선수들이 내부적 분위기를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며 답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었어요. 포엣 감독님은 기본적 틀만 잡아주시고, 순간적인 대처는 우리를 믿어줬거든요. 큰 원칙만 제시하셨습니다. 2025년을 지나며 개인적 목표도 더 뚜렷해졌어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를 보면 이 선수가 정말 빌드업의 중심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선수의 포지션에 따라 전술이 바뀔 정도니까요. 저로 드리처럼 팀의 핵심으로서 기능하는 선수가 돼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 인천의 주장과 찬찬히 살펴본 2025 파검 데이터

이명주를 만났다. 그는 K리그1 승격을 이끈 '성공한 주장'이다. 그라운드 리더로서 윤정환 감독의 미션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안팎으로 동료들을 규합해냈다. 그와 함께 인천이 2025년에 남긴 데이터를 살펴보기로 했다. 캡틴이 들려주는 이야기라 더 흥미롭고 의미 깊었다.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었어요.  
조희수 100만이 넘어가는 2025년  
K리그 최고의 쇼츠 중 하나인 파검의  
티키타카! 인천의 '환상 빌드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11R 충남아산전이었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감독님이 '이런 장면'을 엄청 원하세요. 사실 시즌 중에 더 나왔어야 했는데 저희가 못한 거죠. 원동력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확실한 축구 게임 모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거듭합니다. 핵심은 좁은 공간에서 원터치 혹은 투터치로 공을 안 뺏기고 소유하는 연습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하면 잘 안 돼요. 좁은 공간 적응도 어렵고, 실수도 많죠.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발전했어요. '쌈'들도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멋있는 게 나오는 듯해요. 감독님이 이런 시퀀스 엄청 좋아해요. 장면 하나 나오면 진짜 쾌감을 느끼십니다."

**인천의 점유율이 K리그2 1등이었어요!**

"동계 때부터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훈련이 끝나면 미팅을 통해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점유를 두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유의 중요성이요? 공을 소유하면, 수비를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려가게 되고 공격 숫자가 부족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볼을 뺏겨도 빠르게 수비를 들어가며 다시 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점유를 하며 축구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 시도 과정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패스.**

**인천이 K리그2 평균보다는  
낮았다고 하네요. 챔피언 인천으로서  
의외의 데이터일 텐데, 이 지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 우리는 상대를 한쪽으로 몬 뒤 빠르게 반대로 전환을 하며 거기서 기회를 창출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내려서면 급하게 안 움직이기도 했죠. 측면에서 빌드업을 통해 중앙으로 연결해가는 플레이를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네요."

**또 흥미로운 데이터는  
'슛 대비 득점 전환율' 인천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슛은 비교적 많이 안 했는데,  
골은 잘 만들었다는 뜻이죠.**

"일단 선수들의 결정력이 탁월했습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슛하지 않았다는 것.





앞서 언급한 대로 인천은 만들면서 답을 찾아가었어요. 그러니까 결정력이 좋을 만한 장면에서 슛을 했어요. 무리하게 크로스하지 않고, 돌파해서 좀 더 나은 지점에서 크로스하는 노력도 했어요.”

**인천처럼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팬들이 봤을 때 때로는 지루한 축구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도 경기를 뭘 때 소유는 잘 되는 데, 막상 상대 진영 진입이 안 되면 초조할 것도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죠. 그럴 때면 ‘땀따먹기’를 해야 합니다. 계속 공을 돌리기보다는 공간으로 누군가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을 그쪽으로 보내 50대50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따든, 공을 빼앗기든 둘 중 하나겠죠? 빼앗기면 접근해서 재차 다시 공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시도한 뒤 수비 타이밍에 맞춰 압박을 하고, 그러다가 볼을 빼앗으면 반대편의 경계가 열린 땅으로 빨리 볼을 보내서 재차 공격을 시도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나오고 버티면, 공간으로 빠르게 한 명을 침투시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볼을 돌리기만 하면 상대가 무너지진 않아요.

**이명주 선수의 변화에 대해서도 질문 드립니다. 20대의 이명주와**

**현재의 이명주는 뛰는 스타일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죠. 20대의 이명주는 박스 투 박스였어요. 케빈 더 브라위너처럼 공격적으로 나가며 측면으로도 빠지고, 공을 받아서 크로스도 올렸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는 항상 수비적 미드필더가 있었어요. 요즘은 기동력이 그때만큼은 아니니 ‘중심을 잡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예전에 제 옆에 있어줬던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네요. 2025년은 감독님이 포지션을 그렇게 잡아 주기도 하셨습니다. 감독님 덕분에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한 한 해였어요.”

**평생 그라운드를 누웠는데도 공부를 할 게 남았다니 참 신기해요.**

“새롭게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축구가 계속 변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죠. 2025년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오랜만에 느낀 감정이었죠. 감독 한 명이 진짜 축구를 바꾸는구나, 분명히 바꿀 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사실 예전에 이정호 감독님과 광주가 축구를 할 때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캐치를 못했어요. 저도 선수인데 말이죠. 볼 소유를 추구하는 거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상대를 공략하는 건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호했어요. 그런 부분을 윤정환 감독님 및 코칭스태프와 훈련하면서 깨우쳤어요. ‘광주 선수들이 이런 까닭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였구나’하고 배운 것들이 있죠. 축구의 트렌드를 조금이나마 읽게 된 거 같아요.”

**이명주 선수가 느낀 축구 트렌드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이야기해주세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미드필더가 공을 받고, 측면 수비수가 나가고, 윙 포워드가 들어오면서 프리 맨을 찾아주는 전형적인 축구였다면. 요즘은 포메이션을 측면으로 더 벌리며 측면 수비수도 깊숙이 들어오고 다른 포지션에서도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려고 하죠. 이런 트렌드를 파악해서 알려주시는 우리 인천 코칭스태프 분들이나 이정호 감독님이 대단한 거 같아요. 이렇게 축구하면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2022년 국내 복귀 이후 2025년에 최다 출장 시간(2,914분)을 기록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짹 짹 놀랄 만한 기록이에요. 일주일에 한 경기씩 하다 보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제 나이가 적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경기는 아직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되더라고요.”

**경기당 평균 활동량도 11.2km였어요. 나이가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활동량으로 커버하는 게 제 강점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힘들긴 하죠. 특히 여름에는 회복이 정말 안 돼요. 몸 풀다가 끝나는데 느낌? 그러니 여름엔 스쿼드가 두터운 클럽이 ভাল 수밖에 없어요.”

**이명주 선수가 경기마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는 횟수가 29.6회였다고 합니다. 공수 양면 가담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증거죠.**

“2025년의 인천은 훈련 패턴을 주기적으로 유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좋을 만한 요인이 많았어요. 실제로 가속을 내는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전과는 이게 다른 점인 거 같아요. 과거에도 12km씩 뛰곤 했지만, 스프린트 횟수가 많진 않았어요. 지금은 순간적인 힘을 많이 써요. 요즘 축구가 그래야만 하기도 하고요. ‘인천은 훈련도 축구 트렌드에 맞춰 잘 진행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러 지표로 보면, 이명주의 선수의 몸이 2025년 내내 참 단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2025시즌에 느낀 점이 있어요. 나이를 먹었다고 운동을 줄이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형태의 운동을 늘려야 해요. 다들 노장이 되면 무리하지 말라, 근육 다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운동을 안 하면 결국 몸이 그만큼 가더라고요. 하던 대로 하면서, 축구를 향한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윤정환 감독이 오고 나서 달라진 점들도 궁금해요.**

“동계 전지훈련 때가 기억나요. 처음엔 간단하게 훈련했어요. 감독님이 그때 프로그램을 다 짰습니다. 참 디테일 했어요. 윤 감독님도 ‘천재과’잖아요. 세세한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교류’였어요. 제게 주장으로서 리더십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소한 가르침이 좋았어요. 우리가 경기 리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감독님은 그때마다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하세요. 선수들을 이해시키는 데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실수하는 순간에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까지 읽는다고 할까요? 이후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피드백을 들으며 선수들은 개선할 부분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리뷰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윤정환 체제의 인천 게임 모델의 핵심을 ‘쉽게’ 정리하자면 무엇일까요?**

“프리 맨을 찾아가기. ‘압박을 당하지 않는 우리 동료를 찾는 게임’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숫자 한 명이 많아야 해요. 골키퍼를 포함해 12대10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 차례 생성해야 경기장에서 유리합니다.”

**인천이 K리그1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수단 사기가 좋으니까, 세밀하게 다듬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휴식을 취해보려고요. 회복을 잘해야, 다음이 또 있거든요.”

K LEAGUE 1

MVP

이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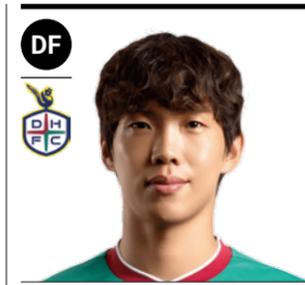


하나은행 K리그1 2025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이동경에게 돌아갔다. 우승팀이 아닌 소속으로 MVP를 거머쥐었다는 점은 그의 개인 기량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증명한다. 36경기 13골 12도움이라는 스탯은 완벽 그 자체였다. 이번 시즌 공격 본능이 완전히 만개한 이동경은 득점과 도움뿐만 아니라 크로스·박스 안 패스·키 패스·슛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휩쓸며 팀의 핵심 '병기'로 활약했다. 이동경은 수상 후 "축구를 시작하며 항상 높은 곳을 바라봤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단계 더 진화할 2026년의 이동경이 벌써 기대된다.

K LEAGUE  
1  
BEST  
11



**송범근 | 선방률 79.2%**  
조현우가 세운 높은 벽을 마침내 허물었다. 지난 8년 동안 그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K리그1 베스트 11 GK 부문에 드디어 송범근이 입성했다. 선방률 79.2%라는 준수한 수치를 기록한 송범근은 시즌 내내 전주성의 든든한 문지기 노릇을 톡톡히 해내며 팀의 후방을 사수했다.



**이명재 | 크로스 성공 32회**  
이명재의 왼발은 날카로웠다.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예리한 '면도날 크로스'를 울리며 대전의 왼쪽 라인을 진두지휘했다. 그로부터 시작되는 크로스는 대전의 믿을 만한 공격 루트였음이 분명했다. 32차례의 정교한 크로스가 완성될 때마다 상대 수비수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홍정호 | 피지컬 경합 성공률 70.9%**  
전주성의 대장이다. 오랜 시간 전북에 헌신한 베테랑 센터백 홍정호는 2025시즌에도 후반에서 팀의 우승을 주도했다. 잘 숙성된 와인이 깊은 맛을 내듯, 홍정호의 수비력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진해졌다. 피지컬로 강하게 부딪치는 순간에도 탁월한 대처 능력을 선보였다.



**야잔 | 전진 패스 성공 705회**  
서울의 게임 플랜을 구현해낸 센터백이다. 야잔은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전방 진출에 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료들 향해 정확하게 볼을 찢어주며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은 완성형 중앙 수비수에 가까운 야잔이 있었기에 다양한 전술적 도전이 가능했다.



**김문환 | 2골 5도움**  
대전의 왼쪽에 이명재가 있었다면, 오른쪽에는 김문환이 버티고 있었다. 김문환은 분주하게 우측면을 누비며 동료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여차하면 직접 공격에 가담해 골을 생산하기도 했다.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폼이 절정에 올라 대전의 상승세에 큰 보탬이 됐다.



**송민규 | xG 5.7**  
송민규의 커리어에서 2025년은 매우 뜻깊은 순간이다. 팀의 주역으로서 전북의 우승을 직접 이끌었기 때문이다. 특히 좌측에서 김태현과 환상적 호흡을 맞추며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만큼 볼 간수와 돌파 능력이 독보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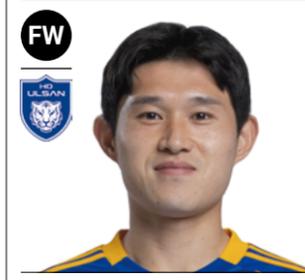
**박진섭 | 중앙 지역 공중볼 경합 성공률 65.6%**  
K리그1 MVP급의 대활약을 펼친 '전북의 캡틴'이다. 그라운드 전 지역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능적 파울과 적재적소로의 위치 선정은 물론, 역습 상황에서 '볼란테'가 무엇인지 똑똑히 증명해 보였다.



**김진규 |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 87.6%**  
동료 미드필더들이 디펜스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 김진규는 보다 전방으로 나아갔다. 그는 전방 공격의 키맨이었다.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이 무려 87.6%에 달했다. 볼을 정교하게 깔고 가다듬은 뒤 동료에게 넘기는 작업에서 김진규는 단연 으뜸이었다.



**강상윤 | 수비 지역 태클 성공률 45.5%**  
박진섭과 김진규 사이에서 만능 엔터테이너 역할을 수행했다. 왕성한 활동량으로 나야했다. 그는 전방 공격의 키맨이었다.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이 무려 87.6%에 달했다. 볼을 정교하게 깔고 가다듬은 뒤 동료에게 넘기는 작업에서 김진규는 단연 으뜸이었다.



**이동경 | 키 패스 77회**  
김천과 울산을 거치며 핵심 인재로 활약했다. 동료를 위해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주는 관점에서는 이동경을 따를 K리그가 없었다. 키 패스만 무려 77회를 기록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게임이 안 풀리면 이동경에게 공을 주면 된다'는 명제가 완벽히 통용됐다.



**싸박 | 17골 2도움**  
K리그1 정규 시즌 내내 활약이 눈부셨다. 거구의 몸집을 가진 싸박은 제공권과 유연함을 모두 갖춘 치명적 스트라이커였다. 그의 주특기는 역시 골 생산력이었다. 싸박은 홀로 17골을 터뜨리며 수원FC의 화력을 책임졌다. 한창 폼이 좋을 때는 상대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K LEAGU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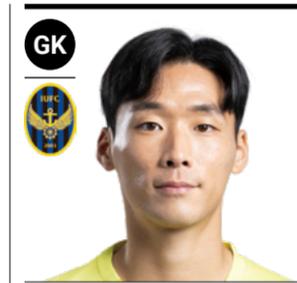
MVP

제르소



하나은행 K리그2 2025의 진정한 주인공은 인천의 제르소였다. 12골 10도움이라는 환상적 스탯은 물론, 수치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라운드 위의 영향력을 보여줬다. 2025시즌의 제르소는 MVP를 수상하기에 충분할 만큼 독보적이었다. 특히 돌파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좁은 공간에서도 제르소의 스피드는 빛을 발했고, 역습 상황에서 그가 공격을 주도하면 인천은 해당 시퀀스에서 골을 만들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제르소는 감독·주장·미디어 투표 등 모든 부문에서 최다 표를 얻었다. 그의 퍼포먼스가 만민에게 인정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다. 제르소 덕분에 인천은 K리그2 1위를 차지했고, 강등 이후 곧바로 승격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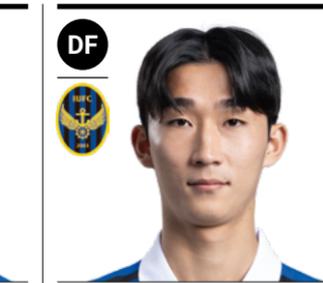
K LEAGUE  
2  
BEST  
11



**민성준 | 클린시트 15회**  
민성준은 2025시즌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인천의 최후방에 굳건히 서서 날아오는 공을 슬기롭게 쳐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31경기 선발 출장 중 클린시트만 15회를 기록하며 K리그2 최고의 수문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활약을 펼쳤다.



**이주용 | 5도움**  
이주용의 정교한 발끝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였다. 도움 횟수 자체는 다른 측면 수비수들보다 적었는지 몰라도, 기록 없는 안정감 측면에서는 이주용이 단연 최고였다. 인천의 최후방에서 발휘한 그의 리더십은 베스트 11로 선정되는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



**김건희 | 전진 패스 성공 1,158회**  
'K리그2의 김민재'였다. 수비 빌드업·전진성 등 모든 면에서 놀라운 기량을 유지했다. 39경기 중 39경기에 모두 선발 출장하는 강철 같은 체력도 보여주었다. 시즌 동안 성공시킨 전진패스만 1,158회에 달해, 베스트 11 선정은 당연한 결과였다. 향후 성장이 더욱 주목된다.



**베니시오 | 공중 볼 경합 성공률 74%**  
성남의 질식 수비를 주도했던 '믿을 맨'이었다. 센터백으로서의 기본 소양에 매우 충실했다. 특히 신장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볼 경합에 매우 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베니시오가 꾸준히 중심을 잡아준 덕분에 성남은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단단해질 수 있었다.



**신재원 | 크로스 성공 69회**  
성장세라는 관점에서만 평가한다면 2025시즌의 신재원이 단연 최고였을 것이다. 측면 수비수로서 성남의 우측을 확실히 책임졌으며, 속도 면에서 더욱 진화한 모습을 보였다. 상대 선수들은 그를 붙잡기 버거워했다. 크로스는 69회나 성공시켰고 도움도 9개나 기록했다.



**제르소 | 돌파 성공 19회**  
제르소가 볼을 치고 달리기 시작하면 상대 팀은 공포에 떨었다. 홀로 다른 레벨에서 뛰는 듯한 모습이었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능력 또한 예술했다. 돌파를 19번이나 성공시켰다. 무고사가 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타적으로 기능한 점도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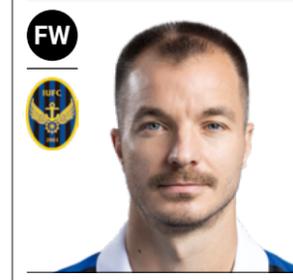
**이명주 | 경기당 평균 뒀 거리 11.2km**  
인천 중원의 심장이다. 자신이 필요한 지역을 영리하게 찾아다녔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당 평균 11.2km라는 활동량을 보여줬다. 이러한 데이터는 철저한 자기관리의 결과이며,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인천의 '주장다운' 이명주였다.



**발디비아 | 16골 9도움**  
2025시즌 K리그2 골·도움 합산 1위는 발디비아의 차지였다. '광양의 예수'답게 맹활약을 이어갔다. 비록 팀 성적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발디비아의 해결사 기질과 영웅적 면모만큼은 시즌 내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팀의 결과가 좋았다면 2025시즌도 MVP를 차지했을 만하다.



**에울레르 | 키 패스 66회**  
2025시즌의 에울레르는 파괴력을 가진 유닛이었다. 12골 11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2 최고의 공격 자원으로 이름을 날렸다. 득점력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키 패스 부문에서 리그 전체 1위를 차지했다. 66회의 송곳 같은 패스는 서울 이랜드의 공격을 한층 날카롭게 빛어냈다.



**무고사 | 20골 3도움**  
어떤 수석어도 필요 없는 인천의 전설이다. K리그2에서 홀로 20골 고지를 점령하며 자신이 어떤 클래스의 공격수인지 다시 한 번 증명했다. 기회가 왔을 때의 치명적 마무리와 기회가 아닌 상황에서도 골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은 2025시즌에도 비범한 수준을 유지했다.



**후이즈 | 17골 2도움**  
무고사가 없었다면 2025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을 만큼 뛰어난 공격수였다. 필요할 때 후방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할 줄 알았고, 전방에 기회가 오면 맹수처럼 골을 뒀다. 성남의 시즌 막판 역주에 핵심적 구실을 했던 자원으로서 베스트 11이 되기에 충분했다.

# 2025 K리그 개인상 투표 결과

K리그 1

K리그 2

부문	소속	후보명	득표수			그룹별 환산 점수			최종점수
			감독	주장	미디어	감독	주장	미디어	
감독상	전북	거스 포엣	9	8	111	22.50	20.00	33.13	75.63
	안양	유병훈	0	2	14	0.00	5.00	4.18	9.18
	대전	황선홍	3	2	9	7.50	5.00	2.69	15.19
	계		12	12	134	30	30	40	100.00
MVP	전북	박진섭	5	2	61	12.50	5.00	18.21	35.71
	수원FC	싸박	2	2	2	5.00	5.00	0.60	10.60
	울산	이동경	5	8	71	12.50	20.00	21.19	53.69
	계		12	12	134	30	30	40	100.00
영플레이어상	강원	이승원	10	6	90	25.00	15.00	26.87	66.87
	안양	채현우	1	2	20	2.50	5.00	5.97	13.47
	서울	황도윤	1	4	24	2.50	10.00	7.16	19.66
	계		12	12	134	30	30	40	100.00
GK	광주	김경민	0	4	2	0.00	10.00	0.60	10.60
	전북	송범근	9	8	127	22.50	20.00	37.91	80.41
	포항	황인재	3	0	5	7.50	0.00	1.49	8.99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DF 좌	서울	김진수	3	4	49	7.50	10.00	14.63	32.13
	전북	김태현	3	3	38	7.50	7.50	11.34	26.34
	대전	이명재	6	5	47	15.00	12.50	14.03	41.53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DF 중앙	광주	변준수	4	4	27	5.00	5.00	4.03	14.03
	대전	안톤	3	4	40	3.75	5.00	5.97	14.72
	서울	야잔	8	1	73	10.00	1.25	10.90	22.15
	안양	이창용	1	3	24	1.25	3.75	3.58	8.58
	포항	전민광	2	5	20	2.50	6.25	2.99	11.74
	전북	홍정호	6	7	84	7.50	8.75	12.54	28.79
계		24	24	232	30	30	40	100.00	
DF 우	대전	김문환	7	4	85	17.50	10.00	25.37	52.87
	전북	김태환	4	6	42	10.00	15.00	12.54	37.54
	광주	조성권	1	2	7	2.50	5.00	2.09	9.59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MF 좌	제주	김승섭	4	5	32	10.00	12.50	9.55	32.05
	전북	송민규	7	4	63	17.50	10.00	18.81	46.31
	수원FC	윌리안	1	3	39	2.50	7.50	11.64	21.64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MF 중앙	대전	김봉수	4	2	2	5.00	2.50	0.30	7.80
	전북	김진규	7	7	59	8.75	8.75	8.81	26.31
	전북	박진섭	5	5	111	6.25	6.25	16.57	29.07
	대구	세징야	3	5	73	3.75	6.25	10.90	20.90
	포항	오베르단	2	1	13	2.50	1.25	1.94	5.69
	안양	토마스	3	4	10	3.75	5.00	1.49	10.24
계		24	24	268	30	30	40	100.00	
MF 우	전북	강상운	7	3	107	17.50	7.50	31.94	56.94
	강원	모재현	3	6	20	7.50	15.00	5.97	28.47
	서울	문선민	2	3	7	5.00	7.50	2.09	14.59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FW	안양	모따	2	2	9	2.50	2.50	1.34	6.34
	수원FC	싸박	3	6	81	3.75	7.50	12.09	23.34
	울산	이동경	9	10	111	11.25	12.50	16.57	40.32
	포항	이호재	4	1	8	5.00	1.25	1.19	7.44
	전북	전진우	5	2	49	6.25	2.50	7.31	16.06
	대전	주민규	1	3	10	1.25	3.75	1.49	6.49
계		24	24	232	30	30	40	100.00	

부문	소속	후보명	득표수			그룹별 환산 점수			최종점수
			감독	주장	미디어	감독	주장	미디어	
감독상	인천	윤정환	10	11	103	21.43	23.57	34.05	79.05
	부천	이영민	4	2	14	8.57	4.29	4.63	17.49
	성남	전경준	0	1	4	0.00	2.14	1.32	3.47
	계		13	13	99	30	30	40	100.00
MVP	전남	발디비아	3	1	18	6.43	2.14	5.95	14.52
	서울E	에올레르	5	3	16	10.71	6.43	5.29	22.43
	인천	제르소	6	10	87	12.86	21.43	28.76	63.05
	계		13	13	99	30	30	40	100.00
영플레이어상	인천	박승호	10	13	93	21.43	27.86	30.74	80.03
	서울E	백지웅	1	1	12	2.14	2.14	3.97	8.25
	수원	이건희	3	0	16	6.43	0.00	5.29	11.72
	계		13	13	81	30	30	40	100.00
GK	인천	민성준	9	9	87	19.29	19.29	28.76	67.33
	성남	양한빈	3	3	26	6.43	6.43	8.60	21.45
	수원	양형모	2	2	8	4.29	4.29	2.64	11.22
	계		13	13	99	30	30	40	100.00
DF 좌	전남	김예성	3	2	6	6.43	4.29	1.98	12.70
	수원	이기제	2	2	39	4.29	4.29	12.89	21.46
	인천	이주용	9	10	76	19.29	21.43	25.12	65.84
	계		13	13	99	30	30	40	100.00
DF 중앙	인천	김건희	8	13	107	8.57	13.93	17.69	40.19
	서울E	김오규	4	3	39	4.29	3.21	6.45	13.95
	수원	레오	1	1	23	1.07	1.07	3.80	5.94
	성남	베니시오	7	7	47	7.50	7.50	7.77	22.77
	부산	조위제	7	2	9	7.50	2.14	1.49	11.13
	부천	홍성욱	1	2	17	1.07	2.14	2.81	6.02
계		26	26	198	30	30	40	100.00	
DF 우	성남	신재원	11	9	85	23.57	19.29	28.10	70.96
	수원	이건희	2	3	30	4.29	6.43	9.92	20.63
	부산	장호익	1	2	6	2.14	4.29	1.98	8.41
	계		13	13	99	30	30	40	100.00
MF 좌	수원	박지원	1	2	3	2.14	4.29	0.99	7.42
	부천	박창준	0	2	3	0.00	4.29	0.99	5.28
	인천	제르소	13	10	115	27.86	21.43	38.02	87.30
	계		13	12	99	30	30	40	100.00
MF 중앙	전남	발디비아	9	11	99	9.64	11.79	16.36	37.79
	서울E	박창환	2	1	6	2.14	1.07	0.99	4.21
	부천	박현빈	5	1	13	5.36	1.07	2.15	8.58
	서울E	서재민	4	1	10	4.29	1.07	1.65	7.01
	수원	이규성	4	3	13	4.29	3.21	2.15	9.65
	인천	이명주	4	11	101	4.29	11.79	16.69	32.77
계		26	26	198	30	30	40	100.00	
MF 우	수원	세라핌	3	3	30	6.43	6.43	9.92	22.77
	서울E	에올레르	10	10	89	21.43	21.43	29.42	72.28
	부산	페신	1	1	2	2.14	2.14	0.66	4.95
	계		13	13	99	30	30	40	100.00
FW	김포	루이스	2	2	3	2.14	2.14	0.50	4.78
	인천	무고사	9	11	115	9.64	11.79	19.01	40.44
	부천	바사니	3	3	31	3.21	3.21	5.12	11.55
	수원	일류첸코	2	2	26	2.14	2.14	4.30	8.58
	전남	호난	1	1	3	1.07	1.07	0.50	2.64
	성남	후이즈	11	9	64	11.79	9.64	10.58	32.01
계		26	26	198	30	30	40	100.00	



# 02

## TALKING POINTS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고상기·홍미루·조건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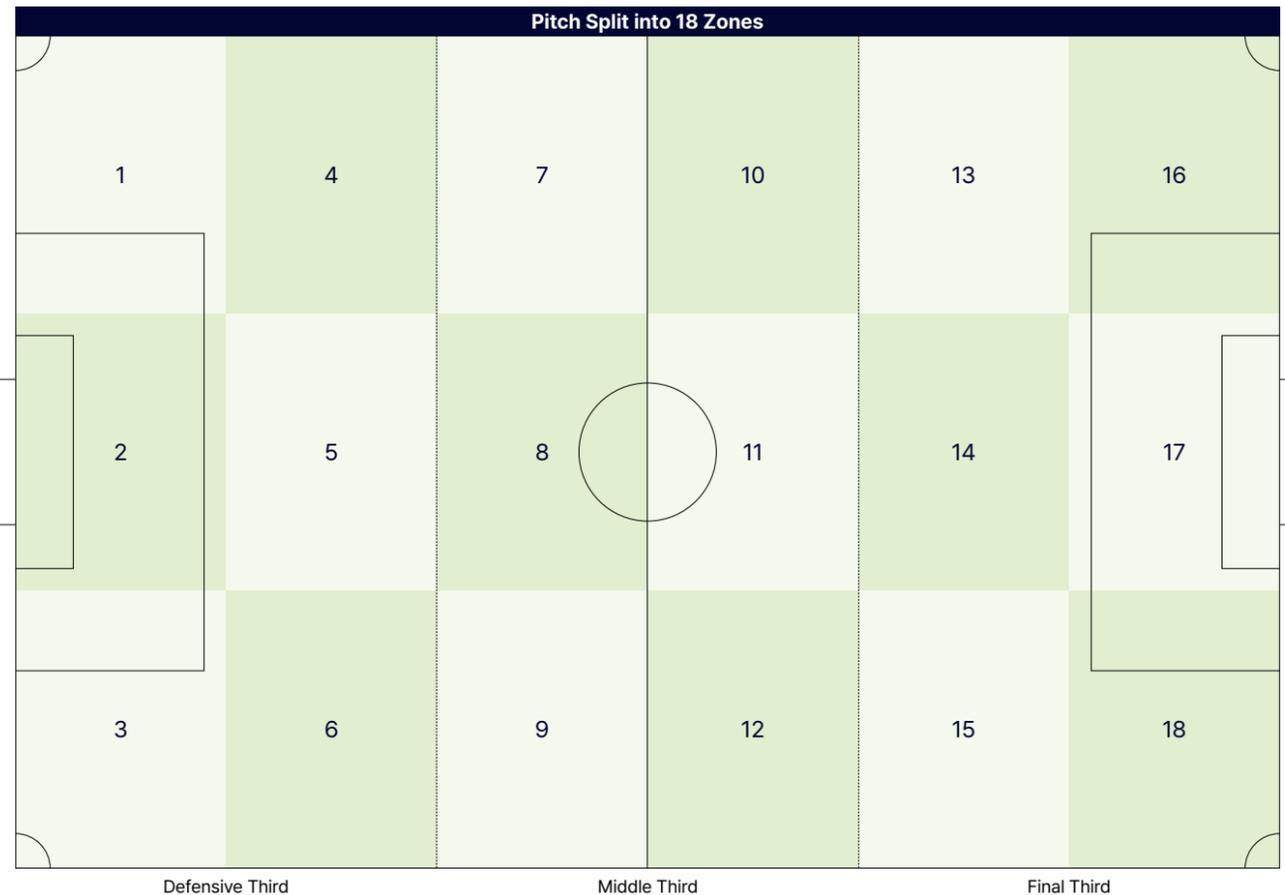
### VAEP란 무엇일까?

본 파트에서는 K리그1과 K리그2의 시즌 이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리그에 소속된 팀의 경기 양상과 전술적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단순한 빈도 집계가 아닌, 경기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행동 가치 평가(Value-based Action Evaluation) 접근을 적용하여 리그 간 경기력 구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VAEP(Valuing Actions by Estimating Probabilities) 지표를 중심으로 각 소속팀의 경기 스타일을 정량적으로 해석했다. VAEP는 각 행동이 팀의 득점 및 실점 가능성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확률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개별 행동의 맥락적 가치를 정량화하는 평가 방식이다. 또한 선수별 출전 시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VAEP를 90분당 수치로 환산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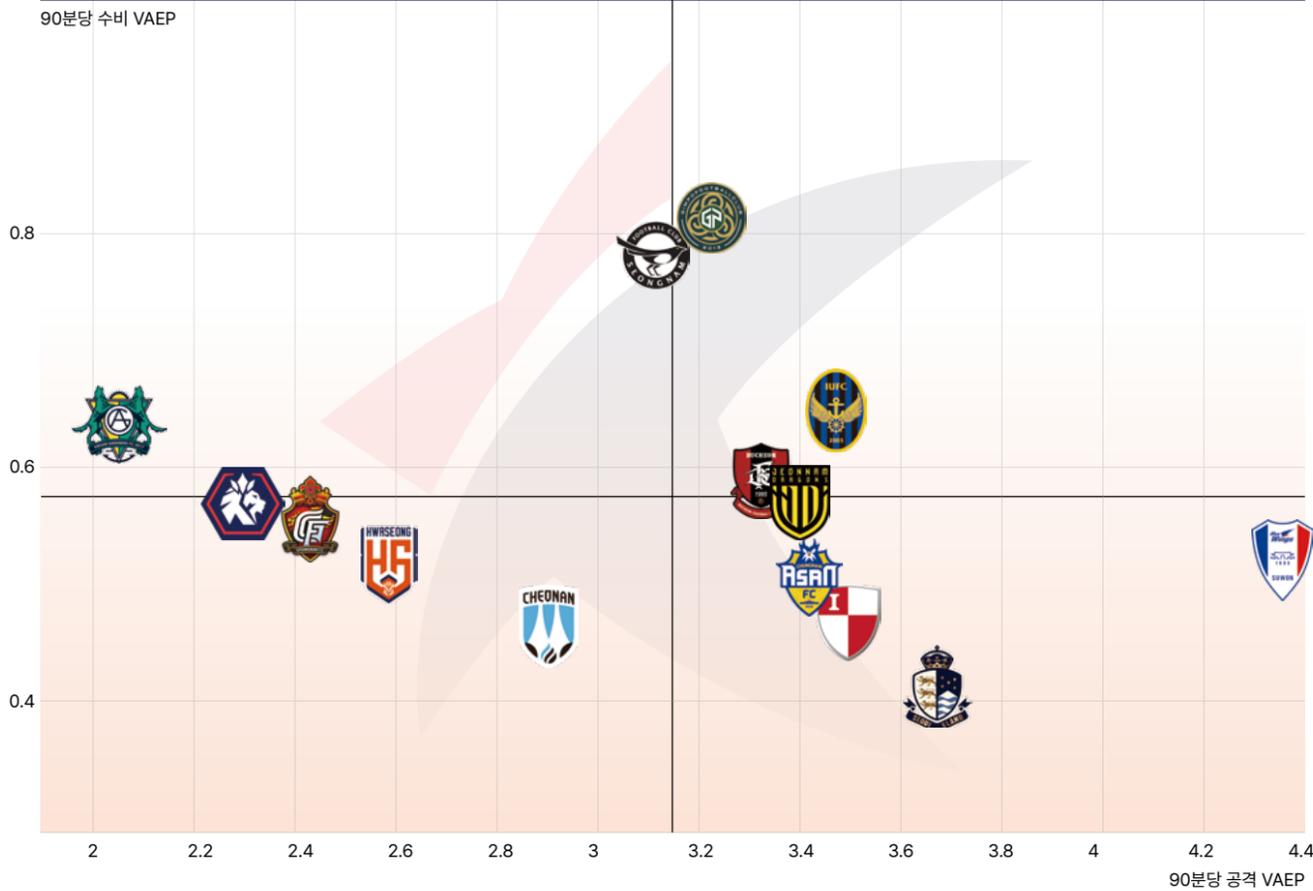
또한 경기장을 18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영향력을 평

가하고자 했다. 이 분석 방식에서 가장 핵심적 영역은 Zone 14, 즉 페널티 박스 바로 앞 중앙 지역이다. 이 구역은 공격의 마지막 연결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패스·드리블·침투 선택지가 가장 다양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Zone 14는 단순한 위치 개념을 넘어 팀의 공격 조직력이 실제로 드러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구역별 플레이에 VAEP를 함께 적용하면, 각 지역에서의 행동이 득점 기대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높였는지까지 평가할 수 있어 팀의 전술적 성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문의 모든 구역별 VAEP 수치는 행동의 시작 지점이 아닌, 행동이 도달한 종료 위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Zone 14나 Zone 17(박스 중앙)과 같은 핵심 위험 지역으로 공을 진입시킨 행동에 대해 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선수 유형별(외국인·U22·O23) VAEP 비중을 도식화한 그래프를 첨부했다. K리그1·2 각 구단의 선수 활용도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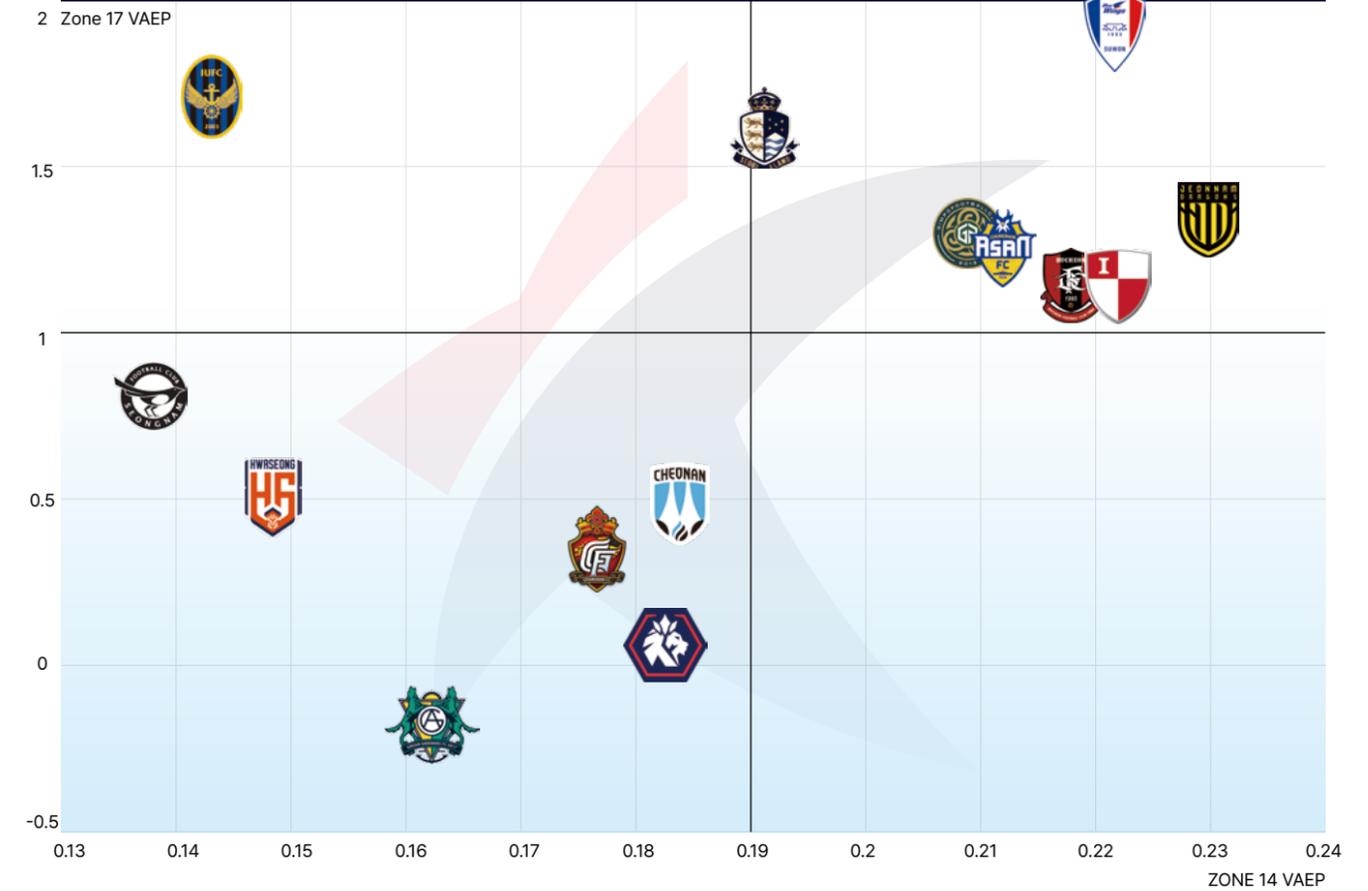




K리그 2 90분당 공격-수비 VAEP 비교(팀별 공격 및 수비 기여도의 분당 효율)



K리그 2 Zone 14-17 종료 행동의 VAEP 비교(팀별 공격 행동 종료 위치 기준 VAEP)



**POINT 2** K리그2 팀 VAEP 분석

인천은 최소 실점 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전체 VAEP가 4.12로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인천의 Zone 14 기여도는 리그 평균을 하회하나, Zone 17 VAEP가 리그 2위를 기록하여 이를 상쇄했다. 이는 중원 점유와 빌드업을 최소화하는 대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효율에 공격을 집중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수비 VAEP를 바탕으로 한 실리적 경기 운영이 우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수원은 90분당 공격 VAEP가 4.37로 리그 평균(3.13)을 크게 웃돌며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였다. 전개과정에서도 Zone 14 보다는 우측 미드필드 존(Zone 15)과 우측 박스(Zone 18)를 중심으로 높은 VAEP를 기록해 측면을 통한 직접적 박스 침투가 주요 특징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비 지표에서는 공격만큼의 우위를

보이지 못했다. 수원의 90분당 수비 VAEP는 0.53으로 리그 평균(0.58)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김포나 성남처럼 수비 VAEP가 높은 팀들과 대비되며, 공격에 비해 수비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수 불균형은 우승 경쟁에서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안산·청주는 수비 VAEP는 낮지 않았으나 공격 기여도가 낮아 반복적 수비 부담을 안고 경기를 운영했다. 이는 승점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고, 실제로 두 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단순한 수비 기여 증가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팀별 분석을 통해, 동일한 리그 내에서도 전술 철학과 선수 구성에 따라 행동 가치가 생성되는 방식이 크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AEP 기반 분석은 각 팀의 전술 운영이 실제 경기 가치 흐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도구로 기능한다.

K리그2 VA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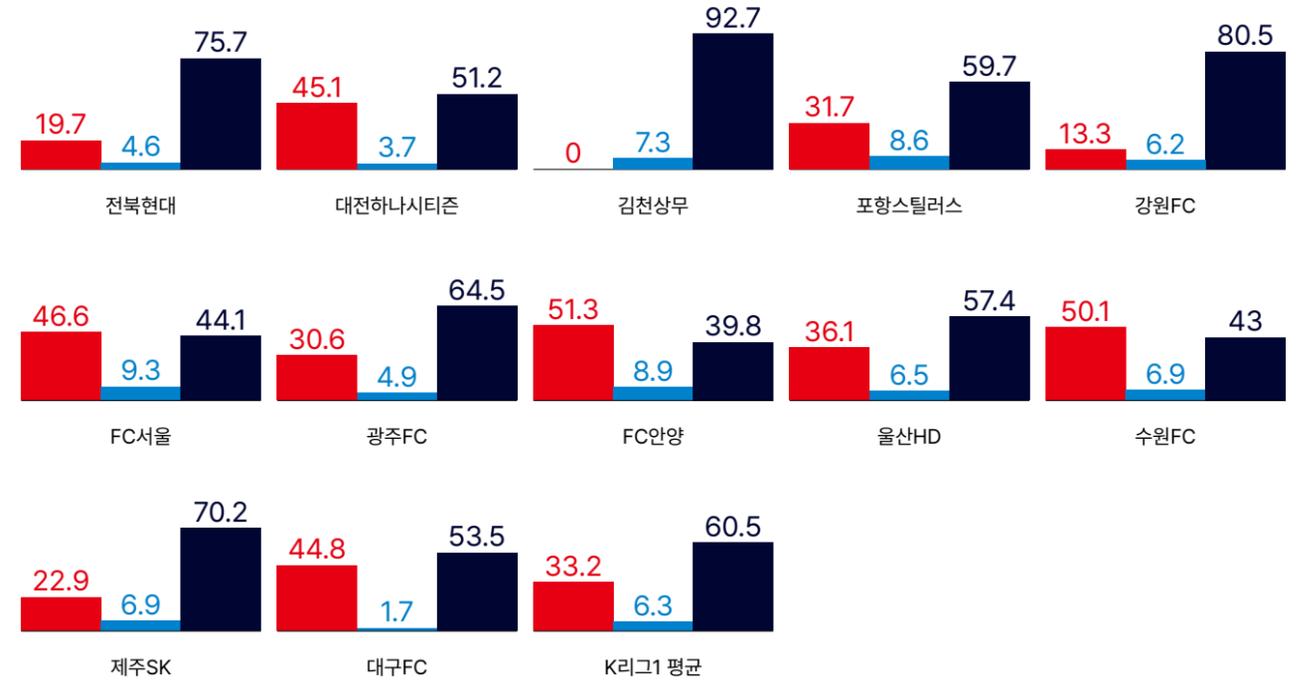
	인천	수원	부천	서울E	성남	전남	김포	부산	충남아산	화성	경남	충북청주	천안	안산
<b>Zone 14 VAEP</b>	0.1537	0.2228	0.2200	0.1917	0.1371	0.2300	0.2121	0.2237	0.2132	0.1464	0.1764	0.1834	0.1838	0.1645
<b>Zone 17 VAEP</b>	1.7090	1.9340	1.1665	1.6124	1.3178	1.2953	1.2937	1.1801	1.2840	0.5788	0.3416	0.0430	0.4947	0.1488
<b>Total VAEP</b>	4.1190	4.8974	3.9384	4.1137	3.8458	3.9856	4.0435	3.9678	3.9527	3.1100	3.0089	2.8633	3.3955	2.7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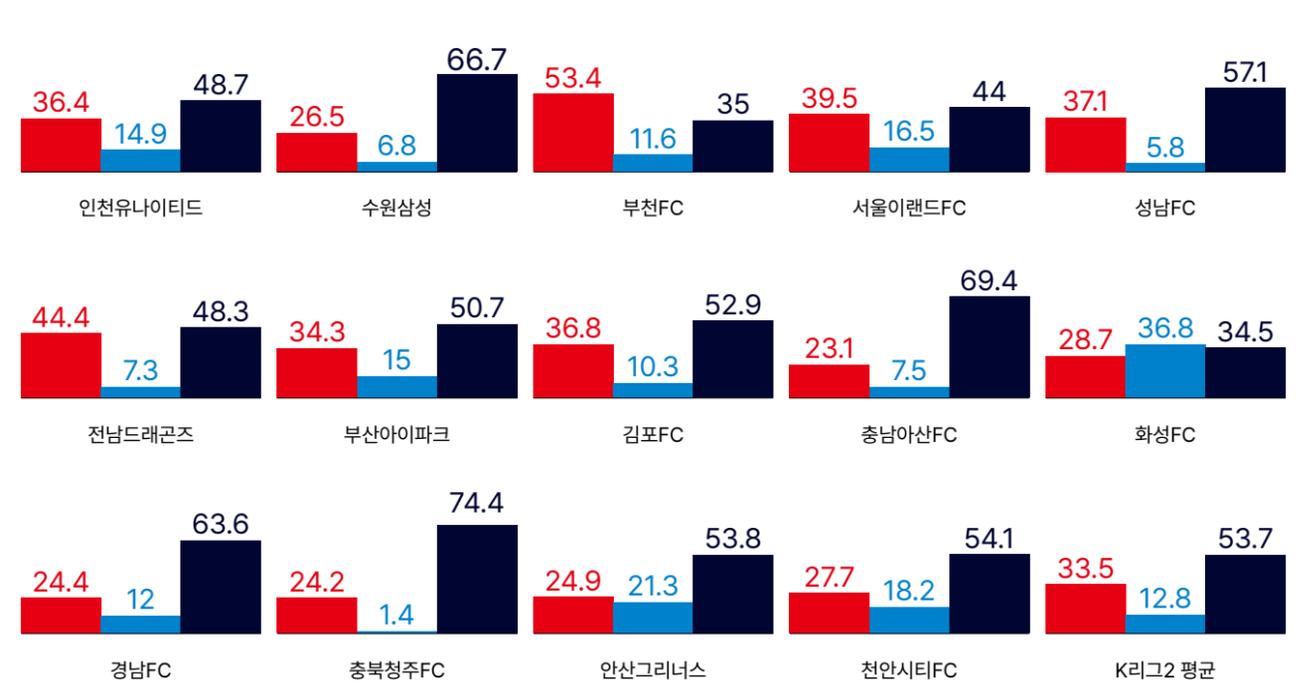
**POINT 3** 각 구단 선수 유형별 VAEP 비중

■ 외국인 선수 ■ U22 국내 선수 ■ O23 국내 선수

**K리그 1**



**K리그 2**





# 03

## ANALYSIS



본 파트에서는 K리그의 공격 장면을  
 롱 볼·전진 패스·시퀀스·세트피스  
 총 4개의 범주로 나누어 K리그1과 K리그2를  
 비교 분석한다. 앞선 'TALKING POINTS'  
 파트와 마찬가지로 VAEP(Valuing Actions  
 by Estimating Probabilities)와  
 경기장 구역 구분을 활용했으며,  
 K리그 팬들이 어렵듯이 느끼는 K리그1과  
 K리그2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OVERALL

공격 전개 측면에서 K리그1은 상대 압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한다. 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에서도 높은 평균 가치를 보인다. 이는 단순한 패스 성공률의 차이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면서 득점 확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공격을 조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K리그2는 보다 직접적이고 빠른 전개 비중이 높으며, 롱 패스나 측면 전환을 통해 압박을 우회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후방과 중원 지역에서의 VAEP 기여도는 낮았지만, 전방이나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발생하는 고가치 행동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LONG BALL

	K리그1	K리그2
경기당 롬 볼 시도	18.8회	<b>20.4회</b>
롬 볼 연결 비율	<b>43.4%</b>	40.3%
소유권 유지율	<b>58.6%</b>	56.4%
슛 연결 확률	<b>24.7%</b>	21.9%

K리그1·2 롬 볼 비교 분석



**K리그1** | 특정 공간과 상대 공략을 위한 직선적 전개로 실리를 챙긴 대구  
**K리그2** | 전환 상황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직선적 전개로 득점에 성공한 화성

롬 볼 관련 지표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분명하게 확인된다. K리그1은 롬 볼 시도 횟수는 적지만, 성공률과 이후 소유권 유지 확률이 K리그2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롬 볼을 압박 회피나 전진 이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K리그2는 롬 볼 빈도는 높지만, 이후 전개 효율과 소유권 유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며, 이러한 직접적 공격 방식이 구조적 이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FORWARD PASS

	K리그1	K리그2
전진 패스 VAEP	<b>0.297</b>	0.280
경기장 중원 구역을 향해 이루어진 플레이의 VAEP (Zone 5, 8, 11, 14)	<b>0.233</b>	0.207
경기장 측면 구역을 향해 이루어진 플레이의 VAEP (Zone 7, 9, 10, 12)	<b>0.335</b>	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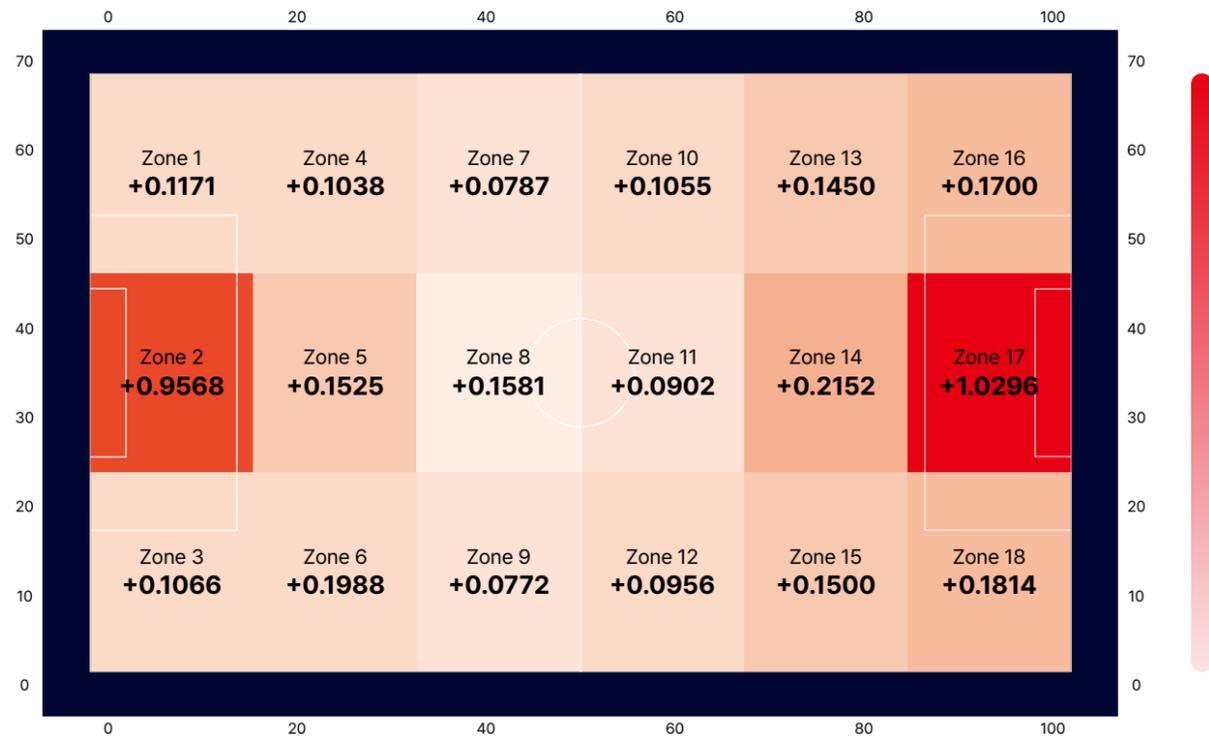
K리그1·2 구역별 VAEP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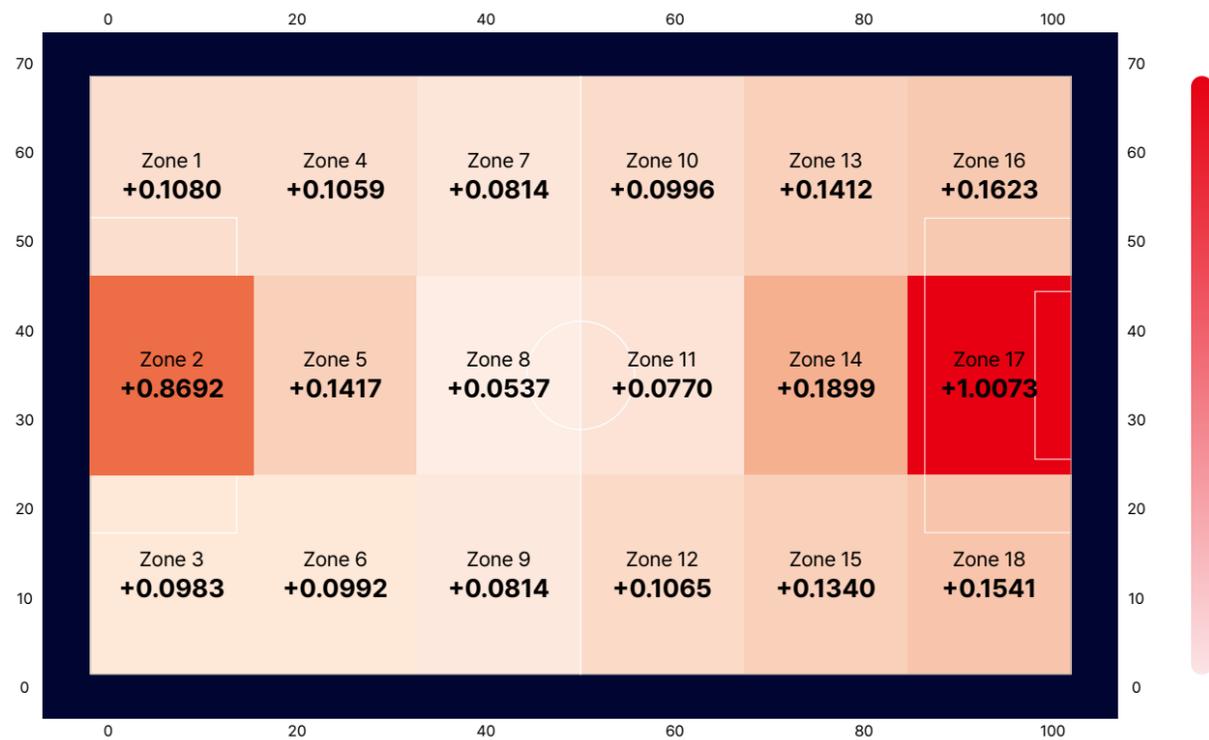
**K리그1** | 후방에서부터 점진적 전개로 상대를 끌어들이고 발생한 공간을 공략한 김천  
**K리그2** | 상대의 수비(압박)를 회피하여 횡적 전개 이후 득점을 시도하는 성남

빌드업 패턴에서도 리그 간 차이가 뚜렷하다. K리그1은 후방에서 중원으로의 점진적 연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강하며, 전진 패스의 VAEP 기여도가 K리그2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K리그2는 중원 지역에서의 패스 빈도와 가치 자체는 크지 않고, 이것이 효과적 전진으로 연결되는 비율도 낮다. 실제로 Zone 14에서의 패스 가치는 두 리그가 유사하지만, 전진 패스의 VAEP는 K리그1이 현저히 높다. 이는 K리그2의 중원 플레이가 상대 압박을 피하기 위한 횡적 전개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반면, K리그1은 중원을 경유해 전방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전진 능력이 더 뛰어남을 시사한다.

ANALYSIS



경기장의 각 구역으로 진행된 플레이어의 VAEP 비교 분석(K1)



경기장의 각 구역으로 진행된 플레이어의 VAEP 비교 분석(K2)



# SEQUENCE

	K리그1		K리그2	
	빈도	VAEP	빈도	VAEP
빌드업 공격	2.2회	0.107	1.9회	0.105
다이렉트 공격	3.6회	0.143	3.2회	0.144
시퀀스 당 평균 VAEP	0.024		0.023	

K리그1·2 시퀀스 비교 분석



**K리그1** | 다채로운 전개 패턴으로 공격 시퀀스의 다양성을 유지한 포항의 특징  
**K리그2** | 꾸준한 빌드업 패턴으로 K리그2를 평정한 인천의 특징

슛으로 마무리된 공격 시퀀스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분명해진다. K리그1은 10회 이상의 패스를 연결한 빌드업 공격과 후방에서 빠르게 전진하는 다이렉트 공격 모두에서 K리그2보다 경기당 각각 0.3회, 0.4회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리그 간 개별 시퀀스에서 발생하는 VAEP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공격 장면 하나하나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한 장면이 얼마나 자주 만들어지는지에서 리그 간 차이가 발생한다. K리그1은 위협적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반복 생산하며, 이로 인해 경기 전체에서 누적되는 VAEP가 더 높게 나타난다.





# SET PIECE

구분	유형	K리그1	K리그2
직접 프리킥	직접 타격	0.101	<b>0.118</b>
코너킥	직접 타격	0.052	<b>0.056</b>
골킥	빌드업	<b>0.012</b>	0.010
스로인	빌드업	<b>0.016</b>	0.015
간접 프리킥	빌드업	<b>0.021</b>	0.020

K리그1·2 구역별 VAEP 비교 분석



**K리그1** | 전복이 높은 위치에서의 측면 스로인을 활용하는 방법

**K리그2** | 직접 프리킥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냈던 수원삼성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리그 간 활용 방식의 차이가 확인된다. 전체적 세트피스 VAEP 수준은 두 리그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유형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직접 프리킥과 코너킥에서는 K리그2가 K리그1보다 높은 평균 VAEP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골킥과 스로인에서는 K리그1의 VAEP가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골킥의 경우,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려는 K리그1 팀들의 전술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04

## TEAM PROFILES



### K리그1

- 01 전북 현대 모터스
- 02 대전 하나 시티즌
- 03 김천 상무
- 04 포항 스틸러스
- 05 강원 FC
- 06 FC 서울
- 07 광주 FC
- 08 FC 안양
- 09 울산 HD
- 10 수원 FC
- 11 제주 SK
- 12 대구 FC

### K리그2

- 01 인천 유나이티드
- 02 수원 삼성 블루윙즈
- 03 부천 FC 1995
- 04 서울 이랜드 FC
- 05 성남 FC
- 06 전남 드래곤즈
- 07 김포 FC
- 08 부산 아이파크
- 09 충남아산 FC
- 10 화성 FC
- 11 경남 FC
- 12 충북청주 FC
- 13 천안시티 FC
- 14 안산 그리너스

이 장의 기록은 K리그1 정규 라운드(38경기), K리그2 정규 라운드(39경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팀별 페이지 상단의 QR코드를 인증하면 KEY FEATURES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북현대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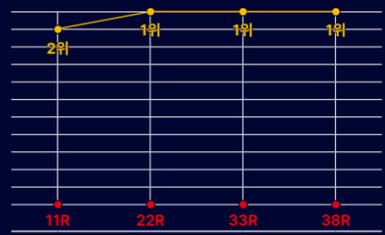


왼쪽과 오른쪽을 넘나드는 공격으로 K리그1을 지배했다. 아울러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는 와중 스피드와 활동량은 최소화하며 효율을 극대화했다. 경이로운 팀이었다.

감독 | 거스 포엣  
생년월일 | 1967. 11. 15.  
거스 포엣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23	10	5
통산	23	10	5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23승 10무 5패



주요 포메이션 | 4-1-4-1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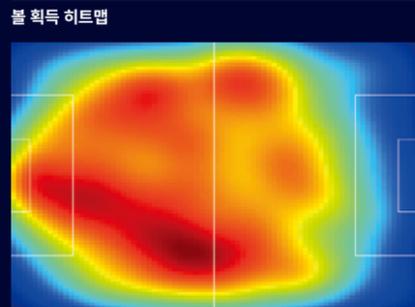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송범근	38	3,871	32	15
DF	김영빈	28	2,630	0	1
	김태현	28	2,701	0	3
	김태환	35	3,406	0	2
	김하준	1	98	0	0
	박진섭	35	3,503	3	2
	안현범	1	5	0	0
	연제운	20	1,024	0	0
	최우진	12	529	0	1
	최철순	9	750	0	0
	홍정호	31	2,866	0	1
MF	감보아	13	715	0	0
	강상윤	34	2,850	0	4
	권창훈	23	728	0	3
	김진규	35	2,609	5	6
	맹성우	4	304	0	0
	보아렝	5	283	0	0
	이명재	32	1,435	2	1
	진태호	12	150	0	1
	한국영	16	713	0	0
FW	박재용	13	524	1	0
	송민규	35	2,448	5	2
	에르난데스	3	107	0	0
	이동준	4	253	2	0
	이승우	25	1,033	4	1
	전병관	7	466	1	2
	전진우	36	2,963	16	2
	추마시	4	138	0	0
	콤파뇨	26	1,681	13	0
	티아고	30	1,753	9	5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1세 9th	93회	X2 0회	1회

##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전진우	16골	28회	10.1골
콤파뇨	13골	25회	8.5골
티아고	9골	24회	6.4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김진규	6회	45회	159회
티아고	5회	13회	10회
강상윤	4회	22회	41회

##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39.5m 7th	52.1m 1st
활동량	스프린트
108.9km 12th	78.7회 12th

## TEAM STATS



오픈플레이	프리킥	코너킥	PK
35골	4골	12골	7골
스로인	골킥	총 득점	전체득점순위
3골	0골	61골	1st
기대득점	xGOT		
58.8골 1st	57.8골 1st		

## KEY FEATURES

1. 기동력 기반 공수 밸런스 유지
2. 4-1-4-1 포메이션에서 직선적 전개와 측면 크로스 활용
3. 최다 득점, 최소 실점 동시 기록

# 대전하나시티즌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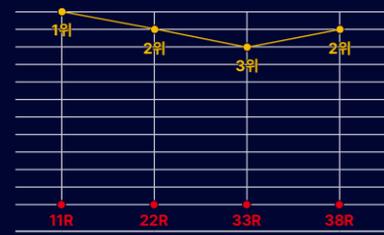


낮은 패스 성공률을 활동량으로 커버했다. 전방과 후방의 간격이 먼 게 특징이었는데, 그만큼 안정성 있게 시즌을 운용했다는 증거다.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했다.

감독 | 황선홍  
생년월일 | 1968.07.14.  
황선홍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18	11	9
통산	197	123	131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8승 11무 9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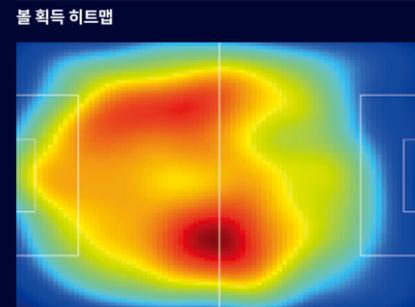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이경태	1	64	2	0
	이준서	11	1,120	15	2
	이창근	27	2,647	29	7
DF	강운성	25	2,195	1	1
	김문환	24	2,054	0	2
	김민덕	12	1,134	0	0
	김진아	4	163	0	0
	김현우	9	661	0	0
	박규현	13	1,066	0	1
	박진성	7	597	0	1
	아론	1	53	0	0
	안톤	30	2,823	2	1
	오재석	12	818	0	1
	이명재	15	1,464	2	3
	임종은	13	829	0	1
	하창래	24	2,267	0	0
MF	김봉수	20	1,996	0	2
	김준범	24	1,404	3	1
	김한서	13	427	0	0
	김현욱	26	1,503	2	3
	박신	14	1,322	1	0
	윤도영	12	625	0	1
	이순민	24	2,080	0	1
	이준규	19	305	1	0
	임덕근	3	201	0	0
	캘빈	9	518	0	1
FW	구태	18	630	4	0
	김승대	4	73	0	0
	김인균	12	468	2	0
	김현오	14	386	1	0
	마사	24	1,650	6	4
	서진수	16	933	2	1
	신상은	6	282	1	0
	에르난데스	15	1,012	4	3
	유강현	12	511	2	1
	정재희	24	1,089	2	2
	주민규	34	2,568	14	3
	주앙 빅토르	13	1,022	4	2
	최건우	15	1,003	4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7.9세 2nd	68회	X2 4회	2회

##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주민규	14골	27회	7.9골
마사	6골	17회	5.1골
주앙 빅토르	4골	9회	2.4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마사	4회	18회	33회
에르난데스	3회	11회	29회
이명재	3회	23회	108회

##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41.4m 2nd	49.4m 9th
활동량	스프린트
113.4km 3rd	90.7회 5th

## TEAM STATS



오픈플레이	프리킥	코너킥	PK
34골	4골	5골	8골
스로인	골킥	총 득점	전체득점순위
6골	1골	58골	2nd
기대득점	xGOT		
51.0골 6th	52.3골 4th		

## KEY FEATURES

1. 이순민-김봉수 중원 조합으로 공수 밸런스 확보
2. 이명재-김문환 양 풀백 활용한 측면 전개
3. 미들 블록 기반의 안정적 수비 운영

# 김천상무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김천은 달렸다. 상황이 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렸다. 평균 스프린트가 100회를 넘어간다. K리그1 1위였다. 김천의 뛰는 축구는 2025시즌도 골과 승리를 불렀다.

감독 | 정정용  
생년월일 | 1969.04.01.  
정정용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18	7	13
통산	81	52	69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8승 7무 13패



주요 포메이션 | 4-4-2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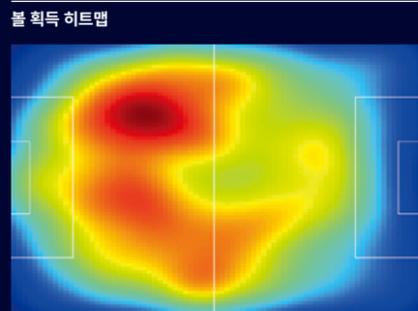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동현	17	1,702	18	10
	김태훈	3	308	6	1
	문원호	2	195	4	0
	백종범	2	196	2	0
	이주현	14	1,433	15	5
D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김강산	19	1,849	2	0
	김민규	5	366	0	0
	김민덕	7	507	0	0
	김태환	5	334	0	0
	김현우	2	83	0	0
	민경현	6	210	0	0
	박대일	11	534	0	0
	박수일	15	1,296	1	1
	박승욱	16	1,557	0	0
	박진성	3	43	0	0
	박찬용	30	2,780	0	1
	박철우	15	1,167	0	0
	오인표	13	966	0	1
	이정택	18	1,554	0	0
이찬욱	5	280	0	0	
조현택	18	1,355	1	2	
최예훈	21	823	0	2	
홍욱현	6	64	0	0	
M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김봉수	15	1,495	0	2
	김이석	6	228	1	0
	맹성웅	18	1,515	1	2
	박세진	14	432	1	0
	박태준	9	688	1	2
	서민우	15	1,434	0	0
	이동경	34	3,005	13	11
	이수빈	4	237	0	0
	이승원	32	2,088	1	6
FW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고재현	12	558	0	0
	김경준	7	257	0	0
	김대원	11	383	0	0
	김승섭	33	2,702	7	3
	김인근	5	155	0	0
	김주찬	5	241	1	0
	김찬	4	66	1	0
	모재현	13	808	1	0
	박상혁	33	2,001	10	2
원기종	21	747	6	0	
유강현	17	1,098	4	2	
이건희	5	365	0	1	
이동준	29	1,417	5	2	
전병관	13	584	0	2	

평균 연령 | 24.9세(10th)  
경고 | 83회  
경고 2회 | 1회  
퇴장 | 1회

##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이동경	13골	44회	11.5골
박상혁	10골	14회	8.2골
김승섭	7골	34회	6.2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이동경	11회	71회	257회
이승원	6회	21회	53회
김승섭	3회	26회	92회

## AVERAGES



## TEAM STATS



## KEY FEATURES

1. 속도 살린 전방 공격 + 이동경 중심의 스코어링
2. 안정적인 빌드업 패턴 바탕 공격 전개
3. 전력 변동 속에서도 유지된 조직력

# 포항스틸러스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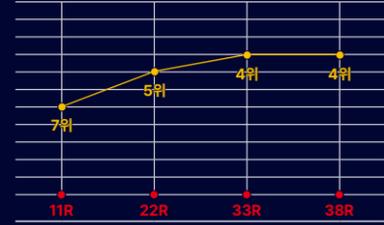


포항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지표를 남겼다. 대부분이 준수했다는 뜻이며 그것이 성적으로 이어졌다. 평균 스프린트 횟수와 최후방-최전방의 거리는 인상적이다.

감독 | 박태하  
생년월일 | 1968.05.29.  
박태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16	8	14
통산	30	19	27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6승 8무 14패



주요 포메이션 | 4-4-2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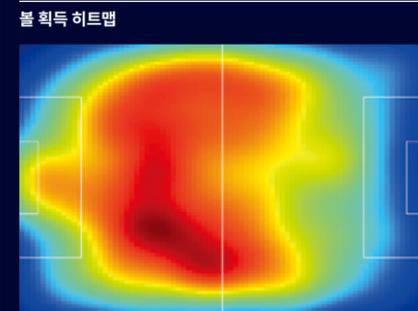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윤영국	3	301	7	0
	홍성민	2	204	8	0
	황인재	33	3,309	31	12
D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강민준	27	1,770	0	2
	박승욱	18	1,688	1	0
	박찬용	4	388	0	0
	신광훈	36	2,496	0	1
	아스프로	5	346	0	0
	어정원	34	3,034	1	1
	완델손	2	142	0	0
	이규백	1	24	0	0
	이동현	3	59	0	0
	이동희	14	837	1	0
	이창우	11	491	0	1
	이태석	22	1,957	1	2
	전민광	37	3,630	0	0
	조성욱	2	47	0	0
한현서	21	1,647	0	1	
M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기성용	16	1,176	0	2
	김동진	20	1,371	0	2
	김종우	13	507	0	0
	오베르단	31	2,977	6	0
	이한재	2	19	0	0
	조재훈	3	87	0	0
	한찬희	9	433	0	1
	홍지우	1	48	0	0
	황서용	12	257	0	0
FW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강현제	13	424	1	1
	김인성	33	1,400	3	2
	박수빈	1	27	0	0
	백성동	8	335	0	0
	안재준	6	94	0	0
	이규민	1	21	0	0
	이호재	34	2,978	15	1
	조르지	36	2,898	5	5
	조상혁	25	802	2	1
주닝요	28	1,717	2	2	
홍윤상	30	1,846	3	2	

평균 연령 | 25.7세 (6th)  
경고 | 61회  
경고 2회 | 0회  
퇴장 | 3회

##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이호재	15골	36회	9.9골
오베르단	6골	15회	3.3골
조르지	5골	30회	6.9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조르지	5회	26회	60회
기성용	2회	21회	64회
김동진	2회	10회	34회

## AVERAGES



## TEAM STATS



## KEY FEATURES

1. BACK3-BACK4 유연한 활용 및 다양한 형태의 빌드업 전개
2. 측면 과부하 통한 효과적 크로스, PA 공략
3. 미들 블록 기반 컴팩트한 수비와 안정적 전향



# 강원 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2025년 K리그1에서 가장 적은 골을 생산했다. 그럼에도 순위는 5위였다. 시즌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무르익었다. 평균 연령이 낮은 팀이라 미래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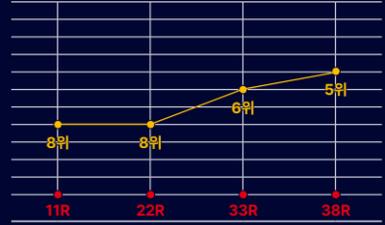
감독 | 정경호

생년월일 | 1980.05.22.

정경호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13	13	12
통산	13	13	12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3승 13무 12패



주요 포메이션 | 4-4-2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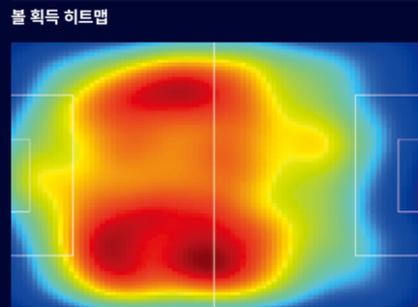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박정효	19	1,910	19	8
	이광연	20	1,919	22	7
D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강준혁	22	1,790	0	1
	강투지	31	3,039	0	0
	박호영	20	1,031	0	1
	송준석	24	2,031	0	1
	신민하	29	2,625	1	1
	이기혁	31	2,652	0	1
	조현태	3	74	0	0
	홍철	21	1,029	1	0
M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강윤구	5	160	0	1
	구본철	14	768	0	0
	김강국	25	1,645	1	1
	김대원	17	1,174	0	0
	김동현	22	1,543	1	2
	김민준	9	485	0	1
	김이석	3	100	0	0
	김태환	1	11	0	0
	서민우	16	1,465	1	0
	이승원	3	215	0	0
	이우현	29	2,663	1	1
	최한솔	6	278	0	0
FW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가브리엘	27	1,569	4	1
	김건희	20	1,317	5	0
	김경민	14	848	1	0
	김대원	18	1,623	2	3
	김도현	24	627	0	0
	김신진	3	63	0	0
	마리오	2	45	0	0
	모재현	19	1,662	5	5
	박상현	4	272	2	0
	윤일록	6	304	0	0
	이상현	30	2,113	4	2
	이지호	27	1,723	4	3
	조진혁	5	226	2	0
	진준서	2	22	0	0
	최병찬	10	472	1	0
	크바체비치	12	501	1	0
	호마리우	1	16	0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4.6세 11th	91회	1회	2회

##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김건희	5골	13회	4.1골
모재현	5골	12회	3.6골
가브리엘	4골	13회	4.0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모재현	5회	22회	86회
김대원	3회	11회	130회
이지호	3회	9회	37회

##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38.6m 9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49.5m 8th
활동량	112.6km 4th	스프린트	88.7회 7th

## TEAM STATS



공격 1/3	44.0% 10th	미드필드 1/3	48.0% 10th	수비 1/3	55.1% 4th
패스 횟수	16,252회 9th	패스 성공률	83.2% 9th	기대득점	39.0골 12th
거리별 패스 분포	장거리 17.9%, 중거리 5.5%, 단거리 31.7%	방향별 패스 분포	전진 패스 43.1%, 백 패스 24.5%, 횡 패스 32.4%	스스로인	1골
블 획득 히트맵					
시간대별 득점	4 (0-15), 5 (15-30), 6 (30-45), 0 (45+), 6 (45-60), 5 (60-75), 4 (75-90), 7 (90+)				
슛 시퀀스	199개 12th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6회 6th	슛 시퀀스 비율	6.9% 12th
골 시퀀스	18개 12th	골 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28회 7th		

## KEY FEATURES

- 3-2-4-1 기반 안정감과 변화를 모두 가져간 공격 전개
- 4-4-2 미들 블록 수비로 실점 억제 효율 GOOD
- 정경호 감독 1년 차 전술적 안정화 달성



# FC서울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최후방 수비와 최전방 공격 간 거리가 가장 먼 팀이 서울이었다. 선수들의 스프린트로 공간을 커버했다. 활동량도 뛰어났다. 슛 시퀀스를 만드는 비율은 '리그 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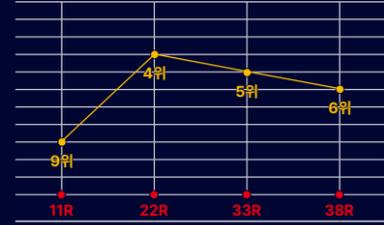
감독 | 김기동

생년월일 | 1972.01.12.

김기동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12	13	13
통산	101	73	73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2승 13무 13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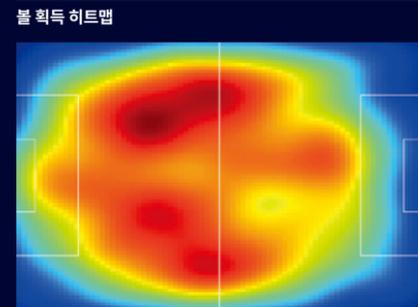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강현무	31	3,057	40	10
	최철원	9	787	12	1
D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김주성	23	2,246	0	0
	김진수	37	3,730	2	8
	김진야	5	95	0	0
	김현덕	1	3	0	0
	박성훈	15	1,185	1	0
	박수일	17	1,578	1	1
	아잔	34	3,427	1	1
	이시영	1	33	0	0
	이한도	7	611	0	0
	정태욱	2	210	0	0
	최준	32	2,938	1	1
M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기성용	8	542	0	0
	류재문	20	1,384	2	1
	박장한결	2	46	0	0
	이승모	33	1,765	1	0
	정승원	33	2,701	2	5
	황도윤	34	2,419	1	4
FW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강성진	5	150	0	0
	강주혁	3	107	0	0
	김신진	2	50	0	0
	독스	32	1,522	4	0
	루카스	31	2,045	5	1
	링가드	34	2,785	10	4
	문선민	35	1,881	6	3
	바또	2	51	0	0
	손승범	5	192	0	0
	안데르손	17	1,526	1	2
	윌리안	7	138	0	1
	정한민	13	429	0	0
	조영욱	34	2,328	7	2
	천성훈	9	137	1	0
	클리말라	4	178	1	1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2세 8th	69회	1회	0회

##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링가드	10골	36회	6.5골
조영욱	7골	21회	6.9골
문선민	6골	21회	6.7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김진수	8회	57회	229회
정승원	5회	30회	64회
링가드	4회	59회	200회

## AVERAGES



공격 1/3	47.3% 3rd	미드필드 1/3	53.7% 2nd	수비 1/3	59.3% 1st
패스 횟수	18,234회 2nd	패스 성공률	85.5% 1st	기대득점	56.5골 3rd
거리별 패스 분포	장거리 20.0%, 중거리 51.2%, 단거리 28.9%	방향별 패스 분포	전진 패스 40.5%, 백 패스 21.6%, 횡 패스 37.9%	xGOT	53.4골 2nd
블 획득 히트맵					
시간대별 득점	3 (0-15), 5 (15-30), 7 (30-45), 4 (45+), 7 (45-60), 9 (60-75), 9 (75-90), 3 (90+)				
슛 시퀀스	307개 1st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48회 8th	슛 시퀀스 비율	10.7% 1st
골 시퀀스	30개 2nd	골 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63회 3rd		

## KEY FEATURES

- 최다 득점자(10골) 링가드의 존재감
- 공격 패턴과 수비 대응의 틀은 구축, but 아쉬운 효율성
- 수비 라인과 골키퍼에서 불안 요소 노출



# 울산HD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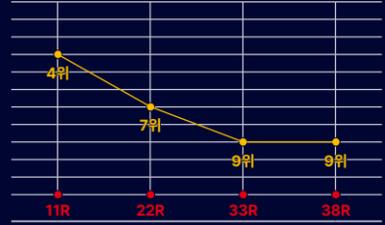


점유율은 K리그1 최고였다. 56.8%를 기록했다. 패스 횟수와 패스 성공률도 각각 1위와 2위였고, 심지어 활동량도 리그 2위였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이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었다.

감독 | 노상래(대행)  
생년월일 | 1970.12.15.

노상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2	1	3
통산	33	35	47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1승 11무 16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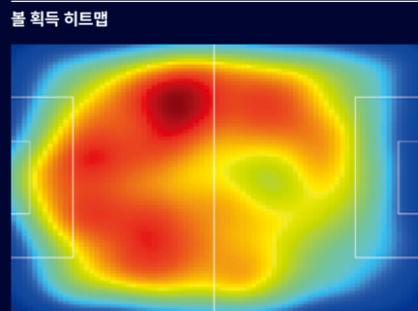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문정인	5	500	5	2
	조현우	33	3,345	45	9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강민우	6	279	0	0
	강상우	32	2,583	1	2
	김영권	36	3,436	0	1
	박민서	16	1,257	1	1
	서명관	21	1,796	1	0
	윤종규	12	1,101	0	0
	이재익	12	762	0	0
	정승현	13	1,214	0	0
	조현택	11	816	1	1
	최석현	23	843	0	0
	트로야크	11	763	0	0
	황석호	3	256	0	0
	MF	고승범	29	2,812	3
김민혁		15	857	0	0
라카바		24	1,160	1	2
루빅손		36	2,740	5	3
백인우		12	522	1	0
보아니치		26	1,834	2	3
염원상		30	1,882	1	5
에릭		28	2,206	10	0
윤재석		30	1,192	1	0
이동경		2	207	0	1
FW	이진현	26	1,871	1	2
	이정용	24	1,313	4	2
	이희균	26	1,058	1	1
	정우영	17	1,125	0	1
	말캉	9	492	3	0
	야고	5	177	0	0
장시영	2	19	0	0	
허울	26	1,798	4	1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7.7세 3rd	76회	2회	0회

##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에릭	10골	25회	8.7골
루빅손	5골	14회	4.1골
허울	4골	11회	5.4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염원상	5회	21회	92회
보아니치	3회	37회	78회
루빅손	3회	16회	109회

##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40.3m 6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50.3m 4th
활동량	115.6km 2nd
스프린트	91.6회 4th

## TEAM STATS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3.2% 1st	55.8% 1st	58.1% 2nd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19,316회 1st	85.4% 2nd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23.4% 중거리 48.3% 단거리 28.3%	전진 패스 42.6% 백 패스 22.3% 횡 패스 35.1%	
블 획득 히트맵	시간대별 득점	
	5 4 4 3 6 10 4 5	

## KEY FEATURES

- 점유 시간 대비 아쉬운 공격 전개 효율성
- 수비 전술 혼용으로 라인 조직 안정성 확보 실패
- 공격 → 수비 전환 상황에서 반복적 문제 노출

# 수원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상대에게 볼을 내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수들의 배치는 좁은 편이었다. 싸박과 윌리안 같은 유닛은 훌륭했는데, 팀으로서 한계가 있었다. 패스 지표는 리그 최하위였다.

감독 | 김은중  
생년월일 | 1979.04.08.

김은중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11	9	18
통산	26	17	33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1승 9무 18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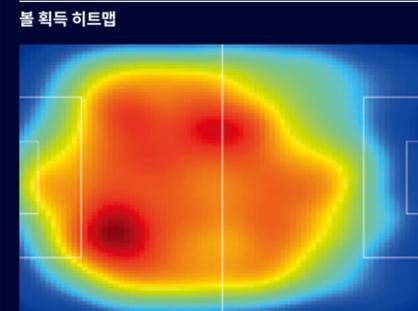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안준수	31	3,070	44	5
	황재윤	8	834	14	1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김재성	13	623	0	0
	김주엽	6	290	0	0
	김태한	29	2,702	0	1
	박철우	4	311	0	0
	아반다	5	189	0	1
	안환범	18	897	1	2
	이시영	17	1,516	0	1
	이용	19	1,835	0	1
	이지솔	25	2,129	1	0
	이택근	11	484	1	1
	이현용	31	2,483	1	0
	장영우	6	265	0	0
	최규백	28	2,456	1	1
황인택	9	366	0	0	
MF	권도영	1	47	0	0
	김도윤	11	399	1	0
	노경호	23	1,427	2	0
	루안	35	3,059	5	0
	서재민	24	1,507	0	1
	안드리고	16	876	0	3
	윤빛가람	11	818	1	0
	이재원	35	3,268	2	0
	장윤호	8	382	0	1
	조준현	4	157	0	0
FW	한찬희	18	1,413	0	0
	김경민	18	1,002	0	2
	박용희	11	587	0	0
	싸박	34	2,984	17	2
	안데르손	20	1,945	5	6
	오프키르	10	442	0	0
	윌리안	11	821	8	2
	이준석	6	176	0	0
FW	정승배	14	324	1	0
	지동원	11	506	0	1
	최산	2	70	0	0
	최치웅	13	284	1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4.3세 12th	72회	0회	1회

##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싸박	17골	52회	12.3골
윌리안	8골	11회	3.7골
루안	5골	26회	3.7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안데르손	6회	35회	65회
안드리고	3회	26회	53회
싸박	2회	27회	25회

## AVERAGES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42.7% 12th	45.6% 11th	49.4% 11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14,211회 12th	80.2% 12th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7.0% 중거리 51.5% 단거리 31.4%	전진 패스 45.8% 백 패스 20.4% 횡 패스 33.8%	
블 획득 히트맵	시간대별 득점	
	7 7 6 3 5 6 8 6	

## KEY FEATURES

- 외국인 공격수 의존도 높은 공격 구조 (싸박 중심)
- 공격 시도 대비 낮은 득점 전환률
- 실점 관리 실패로 강등을 피하지 못한 시즌

## TEAM STATS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3.2% 1st	55.8% 1st	58.1% 2nd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19,316회 1st	85.4% 2nd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23.4% 중거리 48.3% 단거리 28.3%	전진 패스 42.6% 백 패스 22.3% 횡 패스 35.1%	
블 획득 히트맵	시간대별 득점	
	7 7 6 3 5 6 8 6	

## KEY FEATURES

- 외국인 공격수 의존도 높은 공격 구조 (싸박 중심)
- 공격 시도 대비 낮은 득점 전환률
- 실점 관리 실패로 강등을 피하지 못한 시즌



**SUMMARY**



패스 횟수는 많았는데, 실효성이 다소 떨어졌다. 뒀 거리도 부족했다. 이렇다 할 특징을 찾기 어려운 수치가 대부분이다. 애매모호한 색채가 제주의 위기를 불러왔다.

감독 | 김정수(대행)  
생년월일 | 1975.01.17.  
김정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5	2	3
통산	5	2	3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0승 9무 19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동준	31	3,121	41	8	
	안찬기	8	724	12	1	
DF	김문성	35	3,122	1	5	
	김재우	9	102	0	0	
	김태환	2	150	0	0	
	송주훈	35	3,425	1	1	
	안태현	25	1,841	0	2	
	유인수	34	2,833	4	1	
	임창우	24	1,977	1	2	
	임채민	33	2,967	0	0	
	장민규	35	1,954	0	1	
	정운	11	287	0	0	
	MF	김건웅	12	961	0	0
김정민		5	171	0	0	
김준하		31	1,615	3	1	
김진호		6	207	0	0	
남태희		37	3,276	6	4	
이창민		31	2,717	2	3	
이탈로		31	2,729	1	0	
FW		권순호	2	76	0	0
		김승섭	4	248	1	0
		김주공	7	291	0	0
	데닐손	8	234	1	0	
	박동진	10	464	0	0	
	서진수	8	367	1	0	
	신상은	10	357	1	1	
	에반드로	5	219	0	0	
	오재혁	31	1,590	1	3	
	유리 조나탄	33	2,420	13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1세	73회	3회	6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유리 조나탄	13골	35회	10.0골
남태희	6골	22회	4.3골
유인수	4골	15회	5.5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김문성	5회	28회	154회
남태희	4회	47회	135회
오재혁	3회	19회	11회

**AVERAGES**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46.6%	51.3%	52.7%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39.1m	50.2m

활동량	스프린트
111.7 km	87.7 회

**TEAM STATS**



슛 시퀀스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223개	2.62회	7.9%

골 시퀀스	골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22개	1.59회

**KEY FEATURES**

- 전개 과정 대비 공격 영향력 ↓
- 압박 강도 및 수비 운영 기복으로 경기 흐름 불안정
- 김정수 감독대행이 팀을 수습하며 잔류 성공



**SUMMARY**



대구의 2025시즌은 악몽이었다. 수지에 있어서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구가 잘하는 가속 페달 밟기도 2025년만큼은 어려웠다. 세징야와 에드가의 분투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감독 | 김병수  
생년월일 | 1970.11.24.  
김병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4	11	7
통산	53	60	82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7승 13무 18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박만호	2	204	6	0
	오승훈	17	1,737	31	1
	한태희	19	1,965	30	1
DF	김강산	4	416	0	0
	김진혁	9	640	0	0
	김현준	21	1,663	3	1
	박재현	7	169	0	0
	박진영	16	1,424	0	1
	우주성	18	1,874	0	0
	유지훈	2	42	0	0
	이림	9	415	0	0
	이원우	10	504	0	0
	장성원	21	1,668	1	1
	정우재	16	1,318	0	0
	정현철	10	720	0	1
	조진우	5	239	0	0
	카이오	32	3,148	5	2
홍정운	8	441	0	0	
황재원	35	3,484	0	2	
MF	김정현	26	2,276	0	1
	박세진	3	148	0	0
	오시노	16	1,206	2	0
	이용래	14	443	0	0
	이진용	7	279	0	0
	이찬동	12	600	0	1
	정현철	1	65	0	0
	카를로스	8	476	0	0
	한종무	25	1,512	0	2
	FW	고재현	5	215	0
권태영		12	381	0	1
김민준		6	255	0	0
김주공		20	1,732	3	1
라마스		31	2,071	4	2
박대훈		25	1,194	2	0
세징야		25	2,485	12	12
에드가		31	1,589	6	2
진용준		2	30	0	0
정재상		25	1,206	2	1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4세	63회	0회	2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세징야	12골	77회	5.1골
에드가	6골	14회	3.6골
카이오	5골	11회	2.1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세징야	12회	57회	206회
한종무	2회	14회	13회
에드가	2회	14회	8회

**AVERAGES**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45.6%	50.3%	52.5%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40.4m	50.3m

활동량	스프린트
112.3 km	85.7 회

**TEAM STATS**



슛 시퀀스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256개	2.31회	8.7%

골 시퀀스	골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24개	1.38회

**KEY FEATURES**

- 세징야-에드가 의존 속 공격 패턴 단조
- 초중반 승점 관리 실패로 반등에 실패
- 상대 크로스 시 다양한 문제도 리그 최다 실점(67실점) 기록

# 인천유나이티드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모든 지표가 압도적이었다. 점유율·패스·활동량 등 주요 데이터에서 인천의 강함이 드러났다. 눈길을 끈 골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1위). 만드는 플레이가 일품이었던 'K리그2 챔피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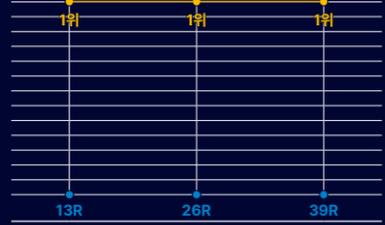
감독 | 윤정환

생년월일 | 1973.02.16.

윤정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23	9	7
통산	74	53	48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23승 9무 7패



주요 포메이션 | 4-4-2



##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동현	7	714	5	10	
	민성준	31	3,136	25	15	
	이범수	1	95	0	1	
	김민석	23	652	1	0	
DF	강윤구	4	134	0	0	
	김건희	39	3,945	1	2	
	김명순	25	1,829	0	3	
	김세훈	1	12	0	0	
	델브리지	16	765	0	0	
	민경현	12	965	0	0	
	박경섭	19	1,798	1	0	
	이상기	16	888	0	0	
	이주용	36	3,608	0	5	
	임형진	4	178	0	0	
	최승구	23	1,436	0	1	
	MF	김건웅	20	1,627	0	0
		김도혁	7	357	0	0
		문지환	15	799	1	0
신진호		32	1,159	4	4	
이명주		34	3,229	2	3	
정원진		19	1,431	1	0	
김민석		23	652	1	0	
FW	김보섭	20	969	0	4	
	김성민	31	1,056	2	0	
	무고사	35	2,599	20	3	
	바로우	35	2,215	3	3	
	박승호	38	2,970	9	1	
	박호민	26	892	5	0	
	백민규	3	154	0	0	
	서동한	1	85	0	0	
	성형찬	1	46	0	0	
	소타	1	64	0	0	
이동률	9	229	3	0		
제르소	37	3,262	12	1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8세 2nd	63회	0회	2회

##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무고사	20골	39회	9.33골
제르소	12골	26회	8.44골
박승호	9골	24회	9.50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제르소	10회	42회	109회
이주용	5회	33회	137회
김보섭	4회	10회	40회

##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39.8m 12th	52.7m 1st
활동량	스프린트
114.6km 2nd	80.5회 12th

## TEAM STATS



슛 시퀀스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251개 5th	2.4회 9th	9.4% 3rd
골 시퀀스	골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32개 3rd	2.5회 1st	

## KEY FEATURES

- 공격 시 3-3-4 구조 활용 안정적 빌드업 활용
- 무고사-제르소 중심의 리그 최상위 공격 효율
- 안정적 라인 컨트롤 기반 리그 최소 실점 수비

# 수원삼성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수치상으로는 인천 못잡았다. 특히 공격 쪽 점유율과 득점력이 돋보였다. 일류첸코·세라핌·김지현 등 스트라이커가 고르게 득점을 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승리를 지켜내는 힘이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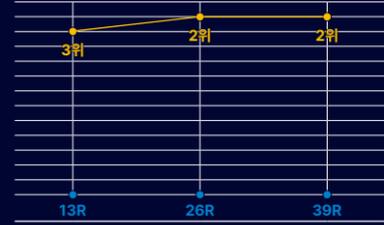
감독 | 변성환

생년월일 | 1979.12.22.

변성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20	12	7
통산	29	22	12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20승 12무 7패



주요 포메이션 | 4-4-2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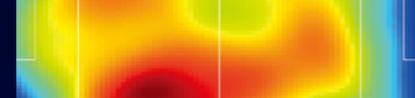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민준	8	812	10	0
	김정훈	2	206	4	1
	양형모	29	2,972	36	7
	김민석	23	652	1	0
DF	고종현	12	827	0	0
	권완규	18	1,698	1	0
	김민우	12	434	0	2
	레오	29	2,710	2	0
	손호준	1	96	0	0
	이건희	27	2,406	1	3
	이기제	34	3,180	3	7
	장석환	8	425	0	0
	정동윤	22	1,535	0	2
	조윤성	6	388	0	0
	최지묵	2	70	0	0
	한호강	15	1,220	0	0
	황석호	13	992	0	0
	MF	강현목	16	548	1
김상준		6	193	0	0
박우진		1	12	0	0
이규성		33	2,715	1	4
이민혁		32	1,764	2	3
최영준		32	1,731	1	0
홍원진		25	1,863	2	1
FW	강성진	13	468	1	0
	김주산	2	41	0	0
	김지현	37	2,483	12	5
	김지호	9	217	0	1
	김현	21	569	3	1
	박승수	11	455	0	0
	박지원	17	1,094	6	1
	브루노 실바	20	1,377	4	4
	세라핌	37	2,832	13	4
	이상민	4	192	0	0
일류첸코	35	2,815	13	6	
파울리노	32	2,191	8	2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5세 6th	60회	2회	6회

##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일류첸코	13골	26회	11.73골
세라핌	13골	31회	8.15골
김지현	12골	27회	7.22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이기제	7회	47회	209회
일류첸코	6회	31회	8회
김지현	5회	27회	26회

##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41.4m 7th	51.2m 8th
활동량	스프린트
110.5km 13th	86.2회 8th

## TEAM STATS



슛 시퀀스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308개 1st	2.8회 3rd	10.3% 1st
골 시퀀스	골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39개 1st	1.9회 7th	

## KEY FEATURES

- 높은 슈트도 수기반 리그 팀 최다 득점
- 외국인이 책임진 득점의 절반 이상
- 수비 시 4-4-2 형태 블록 형성하며 공간 관리

# 부천FC1995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리그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던 클럽. 숫자를 초월한 결과를 남겼다. 패스 지표도 낮고, 활동량도 애매했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스피드와 K리그2 전체 2위. 해야 할 때, 확실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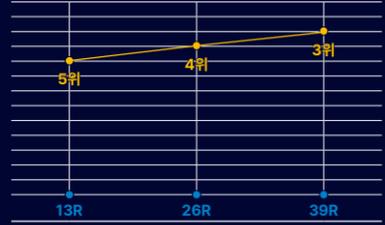
감독 | 이영민

생년월일 | 1973.12.20.

이영민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19	10	10
통산	100	76	87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9승 10무 10패



주요 포메이션 | 3-4-3



##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현엽	1	95	0	1	
	김형근	38	3,842	49	13	
	구자룡	7	602	0	0	
DF	백동규	20	1,924	0	0	
	박형진	7	182	0	1	
	홍성욱	27	2,538	2	0	
	유승현	9	303	0	0	
	이상혁	28	2,419	1	1	
	이재원	18	1,232	0	0	
	남현욱	1	27	0	0	
	전인규	9	696	0	0	
	티아킵요	37	3,128	1	1	
	김원준	1	68	0	0	
	이예찬	3	199	0	0	
	MF	최원철	25	1,281	1	2
		최재영	22	799	0	0
		정호진	25	2,028	0	0
		박현빈	34	3,145	1	1
카즈		36	2,377	1	1	
김동현		22	707	1	1	
성신		6	200	1	0	
FW	한지호	9	360	0	1	
	공민준	25	752	1	0	
	박창준	35	2,482	9	5	
	이의형	23	1,002	4	0	
	김규민	30	1,788	1	0	
	갈레고	25	1,767	5	4	
	장시영	18	1,274	0	0	
	바사니	35	3,305	14	6	
	몬타뇨	36	2,604	12	2	
	이충현	1	11	0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3세 8th	89회	0회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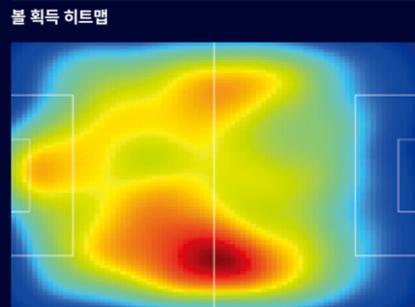
##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바사니	14골	40회	8.30골
몬타뇨	12골	37회	10.39골
박창준	9골	9회	3.03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바사니	6회	66회	214회
박창준	5회	29회	37회
갈레고	4회	18회	77회

##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41.3m 8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49.8m 13th
활동량	112.6km 8th	스프린트	95.4회 2nd

## TEAM STATS



슛 시퀀스	237개 8th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6회 6th	슛 시퀀스 비율	8.4% 6th
골 시퀀스	31개 4th	골 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1.7회 9th		

## KEY FEATURES

- 5-4-1 기반 컴팩트한 수비 블록 운영
- 바사니를 축으로 활용한 공격 전개
- 하프스페이스 활용한 효율적 득점 루트

# 서울이랜드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최후방과 최전방의 거리가 좁았다. 선수들이 타 팀과 비교했을 때 똘똘 움직였다는 뜻이다. 스피드와 활동량은 모두 리그 1위였다. 많이 뛰어 공간을 채우는 게 이랜드 스타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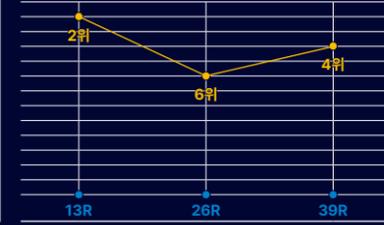
감독 | 김도균

생년월일 | 1977.01.13.

김도균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17	14	8
통산	87	53	83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7승 14무 8패



주요 포메이션 | 3-4-3



##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구성윤	19	1,913	11	10
	김민호	2	203	3	0
	노동건	18	1,807	29	2
DF	강민재	2	67	0	0
	곽윤호	28	2,291	0	0
	김민규	11	604	0	0
	김오규	37	3,191	2	0
	김주환	20	1,358	0	2
	김하준	18	1,649	2	0
	김현우	4	170	0	1
	배서준	16	1,047	0	1
	배진우	26	2,165	0	1
	손혁찬	1	15	0	0
	신성학	2	36	0	0
	아론	3	146	0	0
	오인표	3	136	0	0
	차승현	20	783	1	1
	채광훈	31	1,897	0	3
MF	김영욱	2	53	0	0
	박창환	23	2,196	6	1
	백지웅	33	2,673	1	4
	서재민	31	2,669	2	2
	서진석	18	750	1	0
	오스마르	36	2,626	3	1
	윤석주	8	454	0	0
FW	가브리엘	12	751	1	0
	김강호	1	46	0	0
	까리우스	1	30	0	0
	박경배	13	481	0	0
	변경준	32	1,635	7	3
	아이데일	27	1,997	10	1
	에울레르	37	2,825	12	11
	이주혁	15	630	2	0
	이탈로	5	174	1	1
	정재민	28	1,507	8	4
조상준	4	152	0	0	
페드링요	17	985	2	1	
허용준	20	994	2	2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0세 9th	89회	2회	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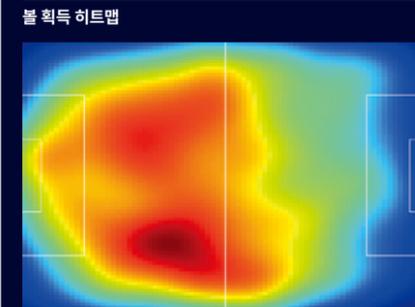
##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에울레르	12골	36회	4.65골
아이데일	10골	25회	10.50골
정재민	8골	14회	4.06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에울레르	11회	66회	194회
정재민	4회	11회	4회
백지웅	4회	18회	25회

##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39.1m 13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51.8m 4th
활동량	117.6km 1st	스프린트	103.5회 1st

## TEAM STATS



슛 시퀀스	220개 9th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7회 4th	슛 시퀀스 비율	7.9% 9th
골 시퀀스	31개 5th	골 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0회 6th		

## KEY FEATURES

- 선택적 블록 활용 5-2-3 형태로 수비 조직화
- 특정 지역 봉쇄 통한 상대 유도 뒤 공격 흐름 제어
- 에울레르 찬스 메이킹 중심의 한 공격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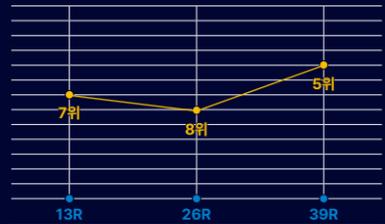
SUMMARY



성남은 방향 전환이 뛰어났다. 최좌측과 최우측의 평균 거리가 51.9M로 리그 2위에 해당했다. 한편에 힘을 주다가 삼시간에 고개를 돌리는데 능했다는 뜻이다. 짜임새 있던 한 해였다.

감독   전경준			
생년월일   1973.09.10.			
전경준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17	13	9
통산	50	54	41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7승 13무 9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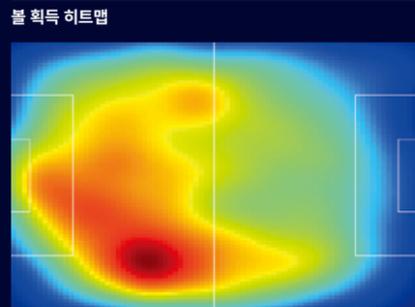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박지민	7	678	4	4	
	안재민	1	23	0	0	
	양한빈	25	2,536	20	12	
	유상훈	7	700	7	2	
	이준상	4	360	0	0	
DF	강익빈	13	824	0	0	
	김주원	20	1,674	0	0	
	박광일	12	364	0	1	
	베니시오	32	3,157	2	0	
	신재원	38	3,791	0	9	
	양시후	4	271	0	0	
	양태양	6	156	0	0	
	이상민	19	1,847	0	0	
	정승용	38	3,714	1	1	
	조성욱	1	40	0	0	
	MF	국관우	2	13	0	0
		류준선	32	1,519	2	0
		박병규	13	255	0	0
박상혁		12	399	1	0	
박수빈		37	3,322	1	0	
사무엘		30	2,210	0	2	
이재욱		12	540	0	0	
장영기		3	80	0	0	
정원진		11	504	0	1	
홍창범		16	1,102	1	0	
FW		김범수	25	1,418	3	0
		김정환	20	1,220	2	1
		레안드로	19	1,084	0	3
	박지원	19	1,413	2	1	
	유주안	2	61	0	0	
	이정빈	26	1,629	7	3	
	이준상	21	921	1	1	
	진성욱	4	183	0	0	
	프레이터스	20	1,501	4	0	
	하정우	7	212	0	0	
	홍현승	1	19	0	0	
	후이즈	38	3,802	17	2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9세 11th	85회	2회	2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후이즈	17골	44회	12.86골
이정빈	7골	17회	4.64골
프레이터스	4골	6회	2.40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신재원	9회	44회	323회
레안드로	3회	10회	29회
이정빈	3회	14회	31회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38.0m 14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51.9m 2nd
활동량	111.4km 11th	스프린트	84.8회 10th

TEAM STATS 상대 자책골 제외



슈트 시퀀스	슈트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슈트 시퀀스 비율
202개 12th	2.3회 12th	7.3% 11th
골 시퀀스	골 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2개 10th	1.0회 13th	

KEY FEATURES

- 측면 활용 기반한 3-2-4-1 공격 구조
- 신재원 전진 활용한 측면 크로스 패턴
- 적절한 상대 맞춤형 수비 옵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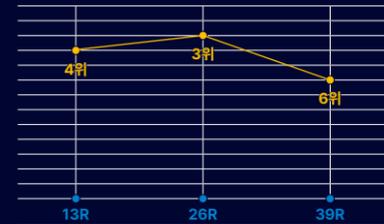
SUMMARY



순위에 비해 점유율은 낮은 편이었다. 엉덩이를 뒤로 뻗 채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 골이나 슈트시퀀스에서는 아끼지 않았다. 슈트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가 K리그2에서도 수위에 가까웠다.

감독   김현석			
생년월일   1967.05.05.			
김현석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17	11	11
통산	35	20	22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7승 11무 11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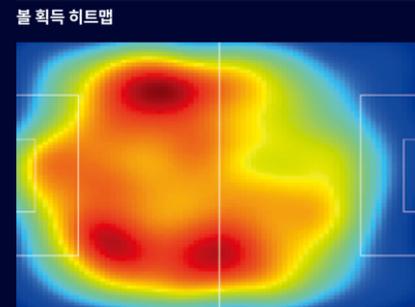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강정목	2	201	4	0	
	성윤수	5	134	2	0	
	이준	2	211	3	0	
	최봉진	34	3,410	43	7	
	안재민	27	1,123	1	0	
DF	고태원	22	1,904	1	0	
	구현준	20	1,275	1	0	
	김경재	20	1,763	0	1	
	김예성	36	3,495	1	3	
	김용환	25	1,982	1	0	
	김주엽	9	514	0	0	
	노동건	8	600	0	1	
	민준영	10	553	0	1	
	안재민	27	1,123	1	0	
	유지하	31	2,882	1	0	
	장순혁	7	143	0	0	
	최정원	18	1,577	0	0	
	홍석현	14	968	0	0	
MF	박상준	20	942	0	1	
	박태용	11	343	0	0	
	알베르띠	38	3,757	3	8	
	양지산	5	155	0	0	
	윤민호	32	2,186	1	1	
	최한솔	20	1,469	0	0	
	FW	김도윤	18	594	4	1
		노건우	4	124	0	0
		레안드로	9	240	0	1
		르본	20	1,084	2	1
		발디비아	32	2,950	16	9
		손건호	2	76	0	0
		유경민	1	14	0	0
임찬울		11	562	1	1	
정강민		25	1,271	4	1	
정지용		31	1,702	6	4	
하남		27	1,539	8	1	
호난		29	1,679	12	6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8세 2nd	66회	0회	1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발디비아	16골	36회	6.04골
호난	12골	29회	9.60골
하남	8골	18회	3.87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발디비아	9회	61회	225회
알베르띠	8회	35회	81회
호난	6회	22회	9회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40.5m 11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51.7m 6th
활동량	112.0km 9th	스프린트	74.5회 13th

TEAM STATS 상대 자책골 제외



슈트 시퀀스	슈트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슈트 시퀀스 비율
278개 2nd	3.2회 1st	10.0% 2nd
골 시퀀스	골 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37개 2nd	2.5회 2nd	

KEY FEATURES

- 발디비아 중심의 공격 조율 및 플레이 메이킹
- 유기적 움직임과 사이드 공격 통한 득점 시도
- 5-2-3 이후 효과적 역습 활용



SUMMARY



2025년도 컨셉트가 확실했다. 평균 점유율은 44.0%로 리그 골피 스프린트는 94.8회로 리그 3위였다. 공이 왔을 때, 두려움 없이 질주했다. 루이스의 결정력은 전술을 완성하는 장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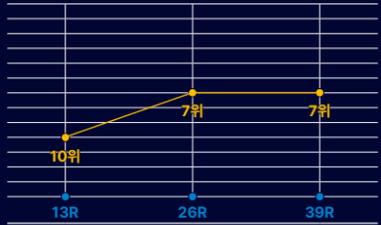
감독 | 고정운

생년월일 | 1966.06.27.

고정운 감독 전적

2025	승 14	무 13	패 12
통산	67	57	66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4승 13무 12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손정현	29	2,859	26	12	
	윤보상	11	1,039	11	4	
DF	김동민	18	1,785	0	0	
	김민식	22	1,602	0	0	
	김민우	17	987	3	1	
	김민호	10	570	0	0	
	김종민	7	146	0	0	
	김지훈	26	1,696	1	2	
	박경록	27	2,390	2	2	
	이인재	1	19	0	0	
	이종현	8	265	0	0	
	이찬형	37	3,450	0	0	
	장부성	14	1,037	0	2	
	채프먼	32	2,945	1	0	
	홍시후	7	141	0	0	
MF	디자우마	34	2,714	5	1	
	연응민	3	29	0	0	
	이강연	6	380	1	0	
	이상민	31	2,044	0	3	
	정우빈	3	122	0	0	
	천지현	20	1,035	2	0	
	최재훈	29	2,549	2	1	
	FW	김결	28	1,089	2	2
		김경준	3	213	0	0
		루이스	33	2,925	14	1
박동진		19	1,377	6	2	
브루노		12	611	0	2	
안창민		18	593	1	1	
윤재운		25	2,048	1	3	
제갈재민		19	811	1	1	
조성준	29	1,426	1	1		
플라나	33	1,837	5	4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6세 5th	83회	2회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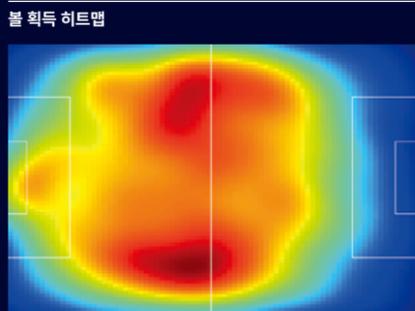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루이스	14골	38회	8.57골
박동진	6골	10회	4.60골
플라나	5골	13회	2.77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플라나	4회	33회	112회
이상민	3회	20회	68회
윤재운	3회	18회	82회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41.7m 5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51.8m 5th
활동량	111.7km 10th	스프린트	94.8회 3rd

TEAM STATS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4.8세 13th	69회	0회	4회

슛 시퀀스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249개 6th	2.4회 9th	8.0% 8th

골 시퀀스	골 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8개 6th	2.4회 4th

KEY FEATURES

- 공격 시 전환 통한 좌우 공간 활용
- 루이스-플라나 듀오 중심의 공격 전개
- 높은 활동량과 기동력 기반 전환 상황 관리



SUMMARY



부산이 남긴 수치는 리그 순위와 비슷했다. 대부분이 중위권에 위치했다.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외국인 선수들의 분투로는 한계점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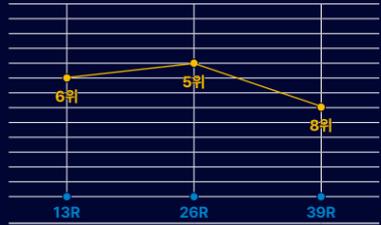
감독 | 조성환

생년월일 | 1970.10.16.

조성환 감독 전적

2025	승 14	무 13	패 12
통산	134	107	119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4승 13무 12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구상민	37	3,730	45	11
	박대한	2	200	1	1
DF	김동욱	16	485	0	0
	김세훈	20	1,337	0	1
	김진래	11	579	0	0
	리영직	2	121	0	0
	박창우	22	1,782	0	2
	오반석	22	1,554	1	0
	이현규	4	180	0	0
	장호익	37	3,700	1	0
	전성진	36	2,998	3	2
	정호근	6	319	0	0
	조위제	36	3,566	1	0
	최예훈	2	113	0	0
	홍욱현	13	1,072	1	0
홍재석	13	468	0	0	
MF	김희승	4	400	0	1
	사비에르	28	2,561	3	0
	손휘	18	340	0	1
	이동수	36	3,160	1	1
	이수아	8	233	0	0
	이현준	4	141	0	0
	임민혁	16	1,266	0	0
	전승민	9	342	0	2
	조민호	3	69	0	0
	페신	35	2,737	12	3
FW	곤잘로	37	2,335	7	3
	김찬	1	89	0	0
	김현민	21	757	0	0
	백가온	20	1,076	3	3
	빌레로	36	3,144	6	7
	손석용	18	532	2	0
	윤민호	18	836	3	0
최기윤	21	776	2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4.8세 13th	69회	0회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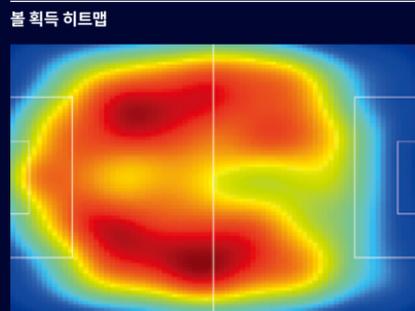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페신	12골	25회	6.48골
곤잘로	7골	35회	8.43골
빌레로	6골	32회	5.73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페신	7회	54회	201회
곤잘로	3회	5회	5회
빌레로	3회	20회	22회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41.8m 4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50.1m 12th
활동량	112.9km 6th	스프린트	88.7회 6th

TEAM STATS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6세 5th	83회	2회	1회

슛 시퀀스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254개 4th	2.7회 4th	8.1% 7th

골 시퀀스	골 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5개 9th	1.4회 11th

KEY FEATURES

- 공격 시 3-4-3 형태로 전진 배치
- 2대1 패스와 3자 패스를 활용한 연계 중심 득점 루트
- BACK3 좌우 센터백의 전진 압박을 활용한 수비

# 충남아산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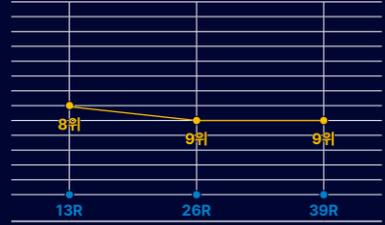


충남아산은 좌우 간격을 좁힌 채로 빌드업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라운드를 주도하려는 계획도 엿보였다. 그러나 골 시퀀스에서 날카롭지 못했다. 박스 바깥 득점도 너무 적었다.

감독 | 조진수(대행)  
생년월일 | 1983.09.02.

조진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5	2	1
통산	5	2	1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3승 14무 12패



주요 포메이션 | 3-4-3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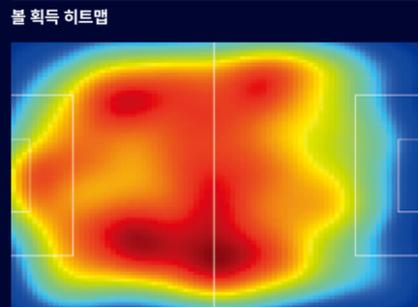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진영	3	304	6	1
	신승훈	36	3,501	41	12
DF	이민혁	5	475	0	0
	김영남	16	1,493	0	0
	김주성	27	1,185	0	1
	박병현	1	74	0	0
	박종민	35	3,021	1	1
	백인환	6	266	0	0
	변준영	19	1,794	1	1
	이은범	14	1,377	0	1
	이학민	34	2,762	3	3
	이호인	17	1,611	0	1
	장준영	9	656	0	0
	최보경	1	18	0	0
	최성진	3	193	0	0
	최희원	15	1,082	0	0
	MF	김정현	17	620	1
김종석		19	1,024	2	1
박세익		15	690	0	0
손준호		35	3,145	2	6
이민혁		3	63	0	0
정마호		18	1,449	2	0
정세준		5	165	0	0
최치원		8	127	0	0
황재환		1	49	0	0
FW		강민규	14	847	2
	김성현	7	272	0	0
	김승호	38	3,351	1	5
	김종민	25	1,691	7	2
	김택근	1	15	0	0
	데니손	35	2,041	6	3
	미사키	12	449	1	2
	박시후	9	399	2	0
	송승민	3	90	0	0
	아담	16	621	4	1
	유동규	5	134	0	0
	은고이	19	1,601	8	2
	이연우	2	16	0	0
조주영	15	1,129	0	0	
한교원	33	2,042	8	6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7세 4th	65회	2회	0회

##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은고이	8골	23회	6.60골
한교원	8골	20회	7.44골
김종민	7골	16회	4.91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한교원	6회	24회	64회
손준호	6회	44회	182회
김승호	5회	39회	134회

##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42.9m 3rd	50.7m 11th
활동량	스프린트
113.0km 5th	84.0회 11th

## TEAM STATS



슛 시퀀스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273개 3rd	2.5회 8th	9.2% 4th
골 시퀀스	골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26개 7th	2.0회 5th	

## KEY FEATURES

1. 중앙에서의 유기적 패스 플레이 통한 공격 전개
2. 미들 지역에서 5-2-3 형태 수비 블록 형성
3. 압박 상황 하 빠른 준비 통한 뒷공간 관리

# 화성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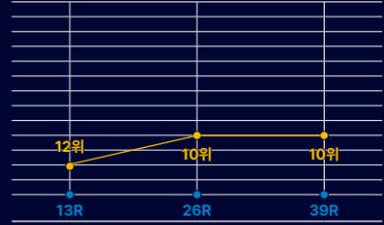


차두리 감독과 화성은 K리그2 첫 시즌,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남겼다. 최후방 수비와 최전방 공격 간 거리는 1위, 최좌측과 최우측 간 거리는 3위였다. 그들의 의도를 피치에 표현해냈다.

감독 | 차두리  
생년월일 | 1980.07.25.  
차두리 감독 전적

승	무	패	
9	13	17	
통산	9	13	17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9승 13무 17패



주요 포메이션 | 3-4-3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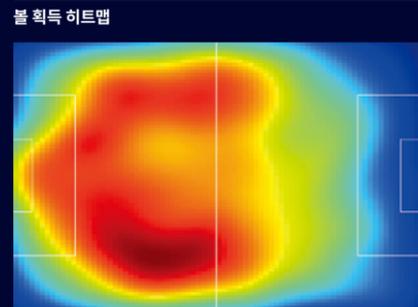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기훈	1	101	1	0	
	김승건	33	3,331	42	7	
	이기현	5	500	7	1	
DF	김대환	30	2,763	1	2	
	김신리	9	590	0	0	
	김준영	10	672	0	0	
	박준서	36	2,566	1	1	
	보이노비치	32	3,208	1	2	
	연제민	18	1,369	0	0	
	우제욱	32	1,553	2	0	
	임창석	32	2,674	5	0	
	조동재	33	2,686	1	0	
	조영진	3	242	0	0	
	함선우	24	2,090	1	2	
	MF	데메트리우스	16	1,371	2	1
		리마	26	1,027	1	1
		박재성	14	466	0	0
		박창호	7	186	0	0
백승우		24	1,278	4	1	
안지만		4	97	0	0	
이은재		2	17	0	0	
전성진		39	2,765	0	4	
최영희		38	2,809	1	0	
최준혁		26	2,254	2	0	
FW	김병오	22	1,512	3	0	
	도미닉	11	799	0	1	
	루안	13	883	1	2	
	박주영	18	1,149	2	4	
	알뜰	27	1,480	6	1	
	여흥규	12	386	0	0	
	유병수	3	63	0	0	
	이승재	5	254	0	0	
이지한	1	18	0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5세 12th	81회	0회	3회

##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알뜰	6골	20회	6.08골
임창석	5골	10회	2.84골
백승우	4골	9회	3.59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박주영	4회	13회	30회
전성진	4회	29회	101회
루안	2회	10회	12회

##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43.5m 1st	51.8m 3rd
활동량	스프린트
113.9km 4th	93.7회 4th

## TEAM STATS



슛 시퀀스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185개 14th	2.6회 6th	7.3% 11th
골 시퀀스	골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14개 12th	1.9회 8th	

## KEY FEATURES

1. 넓게 포지셔닝된 센터백을 활용한 후방 전개
2. 왕백 높은 전진 통한 공격 시 수적 우위 확보
3. 수비 시 5-3-2 / 5-2-3 형태로 중앙 우선 차단



경남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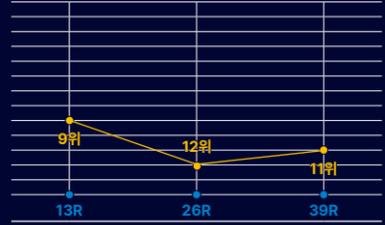
SUMMARY



경남은 시즌 내내 득점력이 저조했다. 골과 슛 시퀀스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렇다고 활동량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개선점을 가득 남긴 시즌을 보낸 경남이다.

감독   김필중(대행)			
생년월일   1983.07.25.			
김필중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4	2	5
통산	4	2	5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1승 7무 21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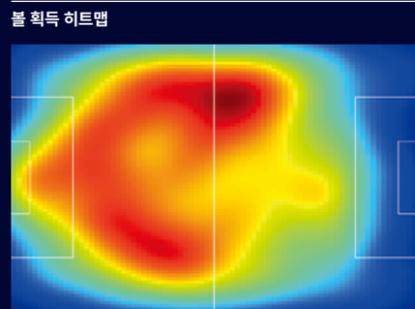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고동민	1	28	1	0	
	류원우	18	1,776	23	6	
	최필수	21	2,026	34	2	
DF	김선호	23	1,712	0	0	
	김형진	26	1,911	1	0	
	박원재	31	2,236	1	0	
	박재환	36	3,364	2	1	
	신승민	5	250	0	0	
	우주성	17	1,407	0	1	
	이규백	9	496	0	0	
	이민기	6	494	0	0	
	이준재	25	1,778	0	0	
	전민수	2	54	0	0	
	천정욱	1	15	0	0	
	한용수	10	980	0	0	
	MF	김하민	16	789	0	0
		김형원	14	488	0	1
		박태용	12	699	1	0
		박한빈	2	111	0	0
		브루노	17	1,585	2	3
코스타		15	1,494	2	2	
이강희		16	782	0	1	
이찬동		19	1,750	1	0	
조영광		17	715	1	0	
한석중		17	601	0	0	
FW	헤난	31	2,357	2	0	
	단레이	12	853	2	1	
	도동현	15	616	2	1	
	마세도	15	806	0	1	
	마테우스	1	28	0	0	
	박기현	29	1,942	1	2	
	박민서	39	2,298	3	1	
	설현진	2	87	1	0	
	송시우	8	325	0	0	
	원기중	3	310	1	0	
	이종민	11	691	2	0	
	이중언	30	1,412	4	2	
	정종근	20	939	1	0	
카릴	28	1,692	2	1		
폰세카	4	210	0	1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5세 6th	84회	1회	1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슛	기대 득점
이종민	4골	10회	3.88골
박민서	3골	18회	4.41골
도동현	2골	6회	1.11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브루노 코스타	3회	24회	84회
이종민	2회	6회	6회
이강희	2회	10회	7회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40.7 m 10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51.5 m 7th
활동량	111.0 km 12th
스프린트	86.7 회 7th

TEAM STATS



슛 시퀀스	247개 7th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2회 13th
슛 시퀀스 비율	8.9% 5th
골 시퀀스	19개 11th
골 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1.4회 12th

KEY FEATURES

- 포지셔닝 및 킥 기반 공격으로 공중 볼-세컨 볼 결합 유도
- 중앙 패스 차단 후 측면의 빠른 선수 활용한 역습
- 수비 시 5-4-1을 주로 활용하며 5-3-2로 적절한 옵션 구축



충북청주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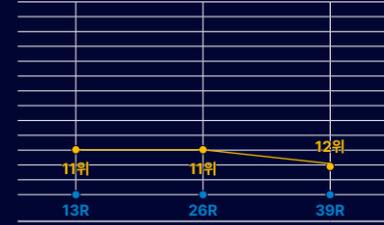
SUMMARY



충북청주는 가브리엘이 없었다면 2025시즌 순위가 더 낮았을지도 모른다. 팀 30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인데, 그중 가브리엘이 8골을 담당했다. 공격 지표 개선이 요구되는 충북청주다.

감독   김길식			
생년월일   1978.08.24.			
김길식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3	5	11
통산	17	22	36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7승 10무 22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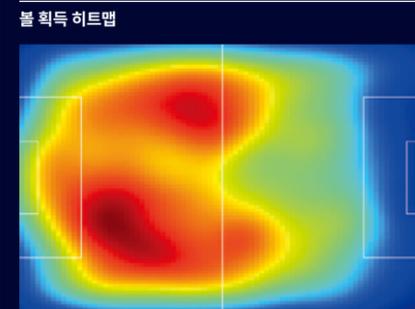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이승환	22	2,168	39	4	
	정진욱	13	1,317	15	3	
	조수혁	5	420	8	0	
DF	김승우	1	68	0	0	
	김윤환	1	4	0	0	
	박건우	9	704	0	0	
	반 데 아벨트	19	1,576	0	0	
	여승원	14	1,151	2	3	
	윤석영	25	1,647	0	0	
	이강한	36	2,940	1	1	
	임준영	15	1,212	0	0	
	전현병	9	458	1	0	
	정성우	11	598	0	0	
	최강민	25	2,344	1	3	
	홍준호	21	2,022	1	0	
	MF	김선민	39	3,905	1	0
		김영화	33	2,947	3	2
		문승민	14	562	0	0
		송진규	7	401	1	1
		여봉훈	3	85	0	0
이동원		19	639	0	0	
이지승		16	514	0	0	
최성근		7	201	0	0	
FW	가브리엘	21	1,692	8	3	
	김병오	7	470	0	1	
	마테우징요	6	208	0	0	
	서재원	30	1,464	0	0	
	송창석	15	741	2	0	
	양영민	7	454	0	0	
	이승재	21	1,204	3	0	
	이원준	2	42	0	0	
	이창훈	38	2,829	1	0	
	이형경	12	312	0	1	
지연화	14	741	0	1		
페드로	35	2,374	4	2		
홍석준	17	784	1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0세 9th	77회	1회	1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슛	기대 득점
가브리엘	8골	17회	8.03골
페드로	4골	17회	6.26골
이승재	3골	10회	2.37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여승원	3회	12회	70회
가브리엘	3회	17회	32회
최강민	3회	35회	121회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43.2 m 2nd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47.8 m 14th
활동량	114.0 km 4th
스프린트	89.4 회 5th

TEAM STATS



슛 시퀀스	212개 10th
슛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2.4회 9th
슛 시퀀스 비율	7.2% 14th
골 시퀀스	11개 13th
골 시퀀스내 평균 패스 횟수	1.6회 10th

KEY FEATURES

- 공격 시 프론트 3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개
- RWB의 인버티드 포지셔닝 활용
- 수비 시 5-2-3 형태 활용 상대 중앙 전진 옵션 제거



SUMMARY



2025시즌 K리그2 클럽 중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던 천안시티. 그래서 시즌지 활동량도 리그 최하위였다. 천안시티는 역동성이 떨어져 보였다. 톱가라와 이상준이 분전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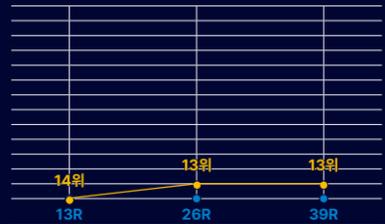
감독 | 조성용(대행)

생년월일 | 1981.06.05.

조성용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2	5	7
통산	2	5	7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7승 9무 23패



주요 포메이션 | 4-3-3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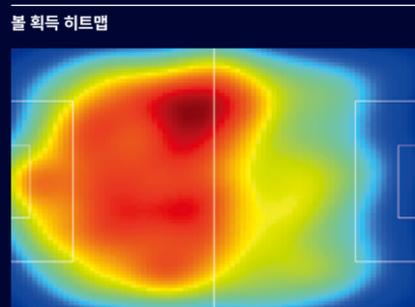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박주원	14	1,354	27	1	
	제종현	2	212	3	0	
	허자용	24	2,397	40	8	
D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강영훈	27	2,670	1	1	
	구대영	11	731	0	0	
	김서진	18	1,319	0	2	
	김성준	17	1,316	0	2	
	김명선	24	1,921	0	5	
	마상훈	14	1,364	0	0	
	박준강	3	139	0	0	
	신한결	1	72	0	0	
	유은상	3	38	0	0	
	이상명	33	3,050	0	2	
	이웅희	29	2,465	1	1	
	최진용	18	1,143	1	1	
	하재민	4	192	0	0	
MF	김성준	27	1,744	5	3	
	김원식	4	283	0	0	
	손정민	1	10	0	0	
	신형민	11	686	0	0	
	양준영	6	333	0	0	
	이광진	27	1,814	0	1	
	이종성	31	1,942	1	1	
	이봉범	4	331	0	0	
	진의준	5	293	0	0	
	튼가라	33	2,947	8	1	
	펠리페	14	967	1	3	
	FW	구종욱	28	1,765	2	0
		김훈도	2	83	0	0
명준재		15	610	1	0	
문건호		9	454	0	0	
미사키		12	692	0	0	
브루노		16	743	5	1	
우정연		13	679	1	1	
이상준		34	1,710	7	0	
이예찬		12	1,038	0	1	
이정협		30	1,856	5	1	
이지훈	25	1,422	2	0		
정석화	10	292	0	0		
파브레	5	208	0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7.8세	84회	2회	6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튼가라	8골	28회	8.10골
이상준	7골	14회	5.08골
김성준	5골	7회	0.82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김명선	5회	11회	71회
펠리페	3회	12회	32회
김성주	2회	5회	3회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41.0m	9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50.9m	9th
활동량	110.2km	14th
스프린트	86.0회	9th

TEAM STATS



오픈플레이	프리킥	코너킥	PK
24골	3골	3골	5골
스로인	골킥	총 득점	전체득점순위
5골	1골	41골	10th
기대득점	xGOT		
46.3골	43.9골		

KEY FEATURES

1. 윙백의 점진적 활용을 통한 3-4-3 공격
2. 돋보이는 윙 포워드의 하프스페이스 활용
3. K리그2 최다 실점으로 수비 불안 노출



SUMMARY



안산은 K리그2에서 가장 어린 팀이었다. 경험 부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순위도 그렇게 됐다. 그래도 슛 시퀀스에서만 들어가려는 의지만큼은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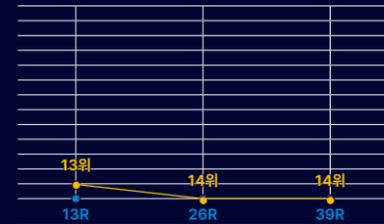
감독 | 최문식

생년월일 | 1971.01.06.

최문식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5	0	1	2
통산	18	16	35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5승 12무 22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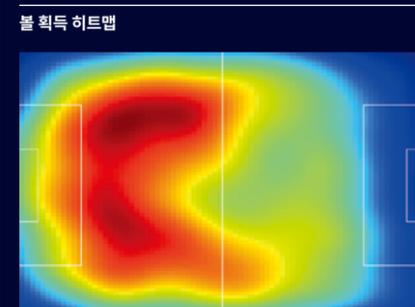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종혁	1	64	0	0	
	이승빈	33	3,175	45	8	
	조성훈	8	626	15	1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김리관	1	23	0	0	
	박시화	29	2,459	1	0	
	안재준	2	64	0	0	
	에두	17	827	1	0	
	이봉연	8	556	0	1	
	임지민	19	1,462	0	0	
	장민준	34	3,226	2	0	
	정용희	28	1,502	0	0	
	MF	김현태	34	3,198	5	0
		라파	36	1,944	1	0
배수민		28	2,094	0	0	
서명식		13	399	0	0	
손준석		31	2,695	0	3	
양세영		20	1,299	0	0	
장동혁		1	2	0	0	
조지훈		36	3,564	1	2	
FW		강수일	9	273	0	0
		김건오	21	1,623	2	1
	김우빈	30	1,726	1	0	
	루안	5	155	0	0	
	류승완	31	1,671	1	0	
	박정우	6	85	1	0	
	박재준	26	1,250	1	0	
	박형우	8	313	0	0	
	사라이바	31	1,790	1	4	
	송태성	26	2,042	0	3	
이규빈	3	84	0	0		
이지성	3	127	0	0		
정성호	11	609	0	0		
제페르손	21	1,544	4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4.4세	70회	1회	0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김현태	5골	14회	2.68골
제페르손	4골	9회	2.26골
김건오	2골	3회	0.88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사라이바	4회	16회	71회
송태성	3회	13회	37회
손준석	3회	21회	63회

AVERAGES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41.6m	6th
최좌측 수비-최우측 간 거리	50.7m	10th
활동량	112.8km	7th
스프린트	70.6회	6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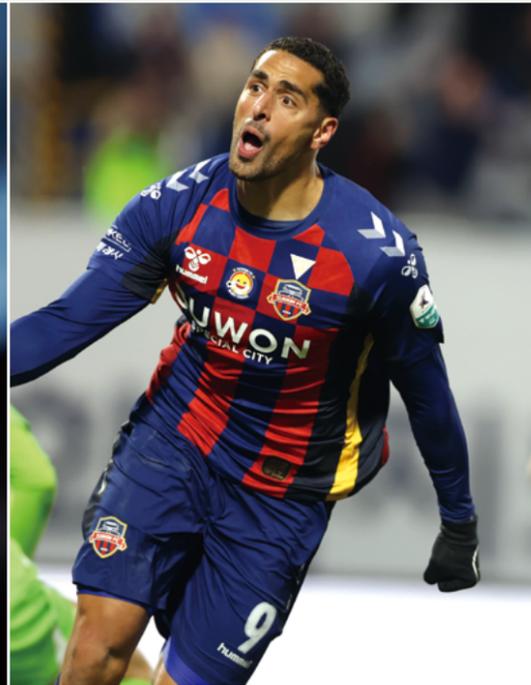
TEAM STATS



오픈플레이	프리킥	코너킥	PK
12골	4골	4골	2골
스로인	골킥	총 득점	전체득점순위
0골	0골	22골	14th
기대득점	xGOT		
32.8골	27.3골		

KEY FEATURES

1. 좌우 전환 이후 직선적 선택과 크로스 중심 공격
2. 수비 시 5-4-1 형태로 컴팩트한 블록 형성 후 역습
3. K리그2 최소 득점 기록으로 드러난 결정력 문제



K LEAGUE

# 2025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5 K리그 기술보고서

발행처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 BEPRO11

기획 | K리그 TSG

편집 및 디자인 | 그래픽레시오

인터뷰 및 교정 | 조남기 기자

사진 | FPhotos

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BEPRO11의 K리그 부가 기록 기준에 따릅니다.



# 2025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5 K리그 기술보고서

